

청산리



2005

루계 제6기

靑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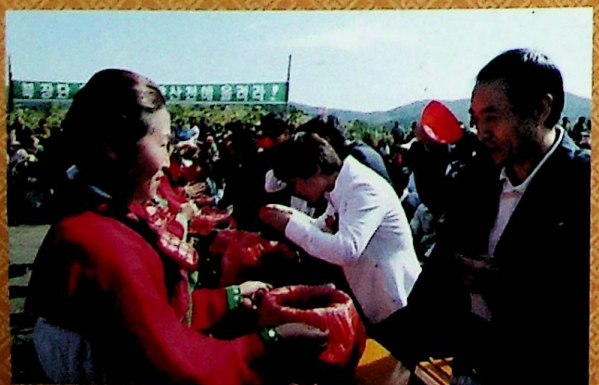


화룡시문학예술계연합회

민속놀이 날리리



2005년 9월 19일, 시위 선전부에서 주관하고 시 조선족서법가협회, 시 민간문예가협회, 시 문화관에서 주최하고 시 문화가의 문흥, 문성사회구역과 룡성진 농가민속락원의 협조하에 화룡시민속문화축제가 농가민속락원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이번 활동에는 100여명의 민속표현 인원이 동원하여 《그네뛰기》, 《바줄당기기》, 《윷놀이》, 《전통혼례》, 《소싸움》 등 16가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표현하였다.



“青山里”祝读者朋友们新年快乐、身体健康、万事如意!

2006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元旦	2 初三	3 初四	4 初五	5 小寒	6 初七	7 初八
8 初九	9 初十	10 十一	11 十二	12 十三	13 十四	14 十五
15 十六	16 十七	17 十八	18 十九	19 二十	20 大寒	21 廿二
22 廿三	23 廿四	24 廿五	25 廿六	26 廿七	27 廿八	28 廿九
29 正月	30 初二	31 初三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初四	2 初五	3 初六	4 立春
5 初八	6 初九	7 初十	8 十一	9 十二	10 十三	11 十四
12 元宵	13 十六	14 情人节	15 十八	16 十九	17 二十	18 廿一
19 雨水	20 廿三	21 廿四	22 廿五	23 廿六	24 廿七	25 廿八
26 廿九	27 三十	28 二月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初二	2 初三	3 初四	4 初五
5 初六	6 惊蛰	7 初八	8 妇女节	9 初十	10 十一	11 十二
12 植树	13 十四	14 十五	15 清明节	16 十七	17 十八	18 十九
19 二十	20 廿一	21 春分	22 廿三	23 廿四	24 廿五	25 廿六
26 廿七	27 廿八	28 廿九	29 三月	30 初二	31 初三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愚人节
2 初五	3 初六	4 初七	5 清明	6 初九	7 初十	8 十一
9 十二	10 十三	11 十四	12 十五	13 十六	14 十七	15 十八
16 十九	17 二十	18 廿一	19 廿二	20 谷雨	21 廿四	22 廿五
23 廿六	24 廿七	25 廿八	26 廿九	27 三十	28 四月	29 初二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劳动节	2 初五	3 初六	4 青年节	5 初八	6 立夏
7 初十	8 十一	9 十二	10 十三	11 十四	12 护士节	13 十六
14 十七	15 十八	16 十九	17 二十	18 廿一	19 廿二	20 廿三
21 小满	22 廿五	23 廿六	24 廿七	25 廿八	26 廿九	27 五月
28 初二	29 初三	30 初四	31 初五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儿童节	2 初七	3 初八	
4 初九	5 初十	6 芒种	7 十二	8 十三	9 十四	10 十五
11 十六	12 十七	13 十八	14 十九	15 二十	16 廿一	17 廿二
18 廿三	19 廿四	20 廿五	21 夏至	22 廿七	23 廿八	24 廿九
25 三十	26 六月	27 初二	28 初三	29 初四	30 初五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建党节
2 初七	3 初八	4 初九	5 初十	6 十一	7 小暑	8 十三
9 十四	10 十五	11 十六	12 十七	13 十八	14 十九	15 二十
16 廿一	17 廿二	18 廿三	19 廿四	20 廿五	21 廿六	22 廿七
23 廿八	24 廿九	25 七月	26 初二	27 初三	28 初四	29 初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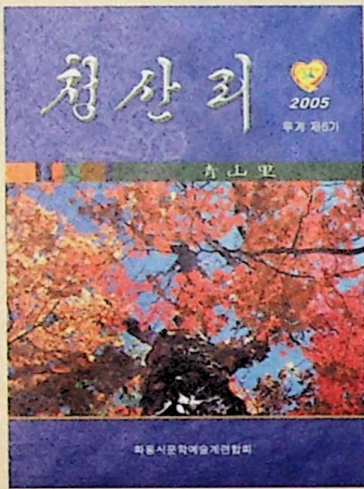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建军节	2 初九	3 初十	4 十一
5 十二	6 十三	7 十四	8 父亲节	9 十六	10 十七	11 十八
12 十九	13 二十	14 廿一	15 老人节	16 廿三	17 廿四	18 廿五
19 廿六	20 廿七	21 廿八	22 廿九	23 处暑	24 闰七月	25 初二
26 初三	27 初四	28 初五	29 初六	30 初七	31 初八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初九	2 初十	
3 建州	4 十二	5 十三	6 十四	7 十五	8 白露	9 十七
10 教师节	11 十九	12 二十	13 廿一	14 廿二	15 廿三	16 廿四
17 廿五	18 廿六	19 廿七	20 廿八	21 廿九	22 八月	23 秋分
24 初三	25 初四	26 初五	27 初六	28 初七	29 初八	30 初九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国庆节	2 十一	3 十二	4 十三	5 十四	6 中秋节	7 十六
8 寒露	9 霜降	10 初九	11 二十	12 廿一	13 廿二	14 廿三
15 廿四	16 廿五	17 廿六	18 廿七	19 廿八	20 廿九	21 三十
22 九月	23 霜降	24 联合国日	25 初四	26 初五	27 初六	28 初七
29 初八	30 初九	31 初十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十一	2 十二	3 十三	4 十四
5 十五	6 十六	7 立冬	8 十八	9 十九	10 廿一	11 廿二
12 廿三	13 廿四	14 廿五	15 廿六	16 廿七	17 廿八	18 廿九
19 廿九	20 三十	21 十月	22 小雪	23 初三	24 初四	25 初五
26 初六	27 初七	28 初八	29 初九	30 初十		

SUN日	MON一	TUE二	WED三	THU四	FRI五	SAT六
					1 十一	2 十二
3 十三	4 十四	5 十五	6 十六	7 大雪	8 十八	9 十九
10 二十	11 廿一	12 廿二	13 廿三	14 廿四	15 廿五	16 廿六
17 廿七	18 廿八	19 廿九	20 十一月	21 初二	22 冬至	23 初四
24 初五	25 初六	26 初七	27 初八	28 初九	29 初十	30 十一



《青山里》编辑委员会

顾问: 康 芳 任钟铉
 社长: 金根官
 总编辑: 刘载学
 监督: 许永顺
 编辑委员: 金东河 金英子 金胜钟
 杨 虎 金泰铉
 文字校对: 金泰铉
 设计: 刘昭贵 林继家
 主办: 和龙市文学艺术界联合会

设计印刷: AAC 艺术广告会社
 Http://www.aacchina.com

차 례

특별기획

버섯(외 2 수) 리근영 5

단편소설

죽음의 《도시락》 김태현 8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들의 뿌리 김태욱 13

샘터로 향한 길 최진옥 17

군인남편과 엄마, 그리고

선산을 거절한 아버지 안수복 19

시 조

토장 박규철 23

론개 허충남 23

시

락엽 허옥진 24

있 신영남 24

고향의 정 (훈춘)김영능 25

찬란한 대화 시림 25

녹슬은 대화 (안도)홍복녀 25

동시

잉어(외 1 수) 오기을 26

명시감상

거울 (한국)이상(李箱) 27

새가사

나리꽃 처녀 한동해 28

사랑의 새 열매 남희풍 28

진달래꽃 (한국) 이시환 28

새 노래 29

특별기획

全市第二届“检察杯”书法摄影作品

촬영작품 37

서예작품 45

수필

선물 리향자 51

기다림의 향기 손혜숙 54

내 삶의 그래프 서창현 56

입과 붓 리근영 58

진달래찬가 허영순 60

성(城)(외 1 편) 류연산 62

학생작문

소원 장혜영 64

평론

가사화원의 길은 서정의 불빛 남희풍 65

표절인가 창작인가 (한국) 이시환 70

독자마당

《청산리》잡지를 읽고서 (흑룡강) 강효삼 76

2005년 화룡시문련 및 각협회 대사기 78



封面: 《红叶》 朴哲 摄影

封底: 《金秋图们江》 刘载学 摄影



리근영 수상년보

1981년 《연변일보》 - 해란 강부간 시 《섬섬해 말아라》 3등상.

1993년 《연변일보》 - 해란 강부간 시초 《개구리없는 논벌에서》 1등상.

2000년 연변음악가협회 등 전국 50주년 가사응모 《나의 하늘, 나의 땅》 입선.

2001년 연변시조시사 제9회 시조시상 《잠자리》.

2002년 한국 세계계관시인 연구회 제5회 시 《끝난 이야기가...》 본상.

2003년 연변 《조간첩》 가사우수상 《인생은 뜨는달 지는달》.

편집자의 말:

2005년 10월 연변동서문화연구회 편찬으로 된 리근영씨의 첫 시집 《바람과는 무게를 비기지 않는다》가 한국 한술정보(주)에 의해 출판되었다.

시집 《바람과 무게를 비기비 않는다》는 7부로 나누어 묶어졌는데 제 1부 《해의 성품》, 제 2부 《반도통일편》, 제 3부 《인생 사회분투편》, 제 4부 《달팽이 사색편》, 제 5부 《탁엽비수편》, 제 6부 《장미 애정편》, 제 7부 《바다미래편》으로 되었다. 이 시집에는 또 장시 《공룡, 생태, 그리고 인류》가 수록되었는데 그의 시는 간결하면서도 철리적인것이 특징이다.

리근영씨의 시집출판을 기념하여 본지는 그가 창작한 500여수 시 가운데서 3수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버섯

비맞기 싫어서 우산을 썼나
해빛이 따가워 양산을 썼나

제목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
노상 둥근 샷갓 눌러 썼구나



바람과는 무게를 비기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무게를 가지지 않는
습습하고 싱거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제힘을 자랑한다
하지만 언제나
자리를 잃고 다니는
뿌리없는 바람과는
그 누구도 절대
무게를 비기지 않는다



생
○
며
○
차
N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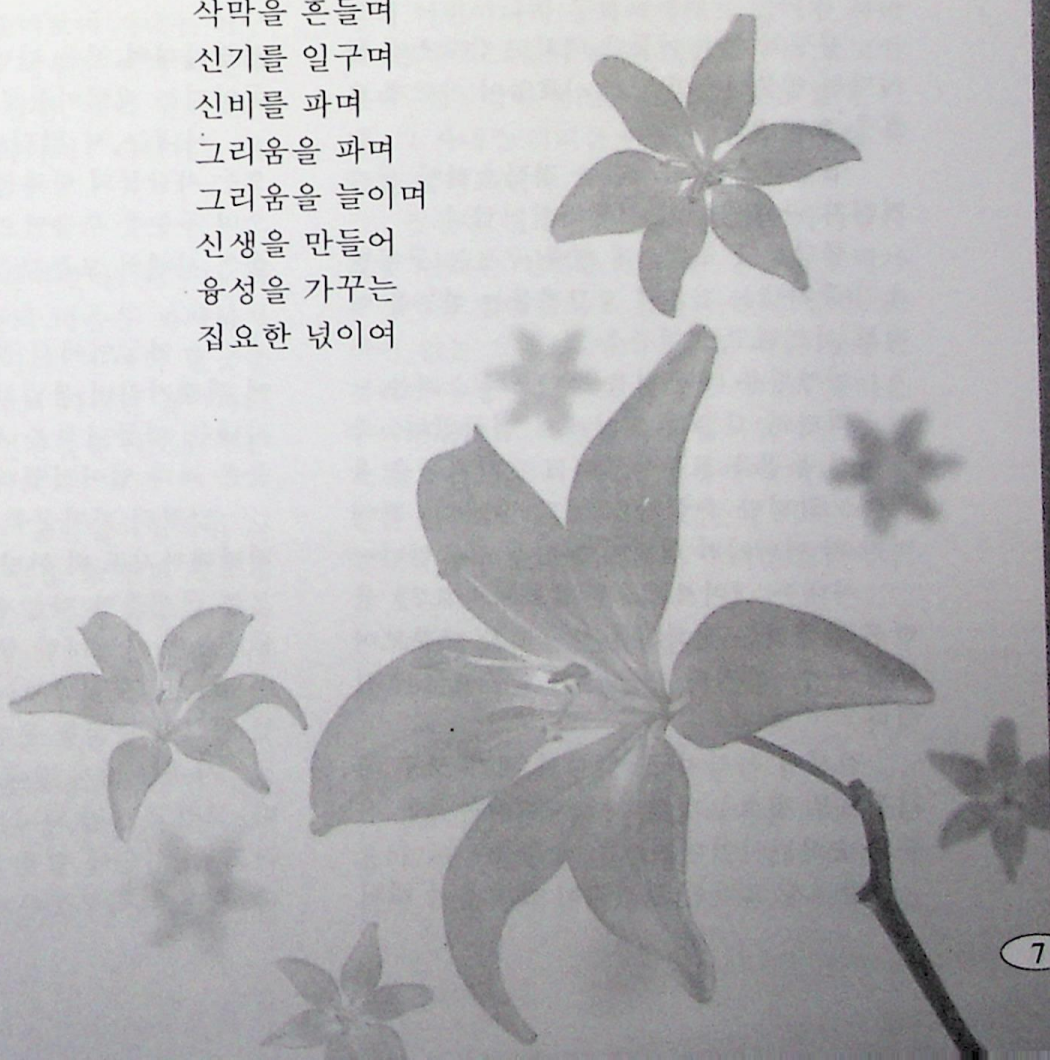
무생에서 와
무생으로 가는
무혼에서 와
무혼으로 가는
요원에서 와
요원으로 가는
우주시각에
한순간으로
찍혔다 사라지는
부단한 생명교체

용용함도 아닌
괴괴함도 아닌
흉흉함도 아닌
침침함도 아닌
팽팽함도 아닌
외외함도 아닌
도도함도 아닌
영검에 안겨
빛과 열을 내며
명명하는 생명

온갖 색조의 배합속에
온갖 의식의 섞임속에
온갖 관념의 침투속에
온갖 주의의 교차속에
온갖 설의 엉킴속에
온갖 리념의 위압속에
온갖 법령의 결박속에
제나름대로
자기특성을 발휘하는
강열한 생명

싱싱함을 위해
 생생함을 위해
 창창함을 위해
 양양함을 위해
 절절함을 위해
 넉넉함을 위해
 우주혼합에 들어
 전체결합에 들어
 불타는 생명

오, 순환과 윤회의
 물리운동으로
 광음을 깨며
 적막을 깨우며
 삭막을 흔들며
 신기를 일구며
 신비를 파며
 그리움을 파며
 그리움을 늘이며
 신생을 만들어
 융성을 가꾸는
 집요한 녀이여



죽음의 《도시락》

김태현

자정의 까만 어둠을 헤치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앰블렌스의 빨간 신호등이 가쁘게 호흡을 토해낸다.

앰블렌스의 아츠러운 경적소리에 서가 거리의 한 귀퉁이가 시끌벅적거렸다.

쿵당쿵당 요란스레 땅을 구르는 구두발 소리에 사내는 가늘게 꼬그라붙는 실눈을 억지로 치뜨려고 모지름을 썼다.

안간힘을 다해 힘을 모았으나 소리는 모기소리만치 가늘게 입안에서 맴돌았다. 축늘어진 두팔을 모두어보려고 손가락들을 움직여보았지만 손끝만 파르르 떨린다. 한메터만 더 기여가면 전화기를 다시 잡으련만...

사내는 《여보세요? 여보세 - 요?》를 련신 란발하는 전화기를 눈끝으로 바라보며 무겁게 푸-득거리는 두 눈까풀을 맥없이 덮었다.

전신이 녹작지근, 일신의 피가 모두 머리통으로 휩쓰는가싶더니 빠개지는듯한 진통도 순식간이었다.

황- 황 요란한 혈관벽의 폭팔음이 대뇌

신경마다의 얇은 간막을 사정없이 짓부시고 굳어지는 피덩이들로 뇌수를 육박했다.

사내는 저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형체를 아리송한 기억으로 톱으며 두눈을 부릅떴으나 파르르 떨리는 눈까풀은 사내의 모든것을 암흑으로 몰아갔다...

... 아궁이에서 물솟어나오는 연기 때문에 캐캐거리며 봄날의 흐린날씨를 원망하던 사내는 아들너석을 시켜 집에 생긴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젖혔다.

낮부터 지지콜콜 앓던 찌뿌둥한 하늘이 저녁때까지도 비 한방울 쏟뜨리지는 않고 애모쁜 구새통만 가늘게 애먹인다. 곧게 뻗은 구새통이 가느다란 실연기를 힘겹게 물어내며 땅을 짚고 쳐다보는 사내의 그을음투성이인 쨍그린 얼굴을 못견디게 내려다본다.

사내는 다시 집에 들어가 부엌에 내려선다. 그리고는 잘 되지도 않는 입을 한껏 오무리고 두 입술에 힘을 모아 휘파람을 불어본다. 랑불을 탁구공만치 살구고 힘을 모아도

연기는 나보란듯이 사내의 휘파람소리를 무마하고 더 기승을 부리며 사내를 부엌에 못박는다.

사내는 죽을 힘을 다해 휘파람을 분다.

옛날, 옛날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휘파람을 타고 아궁이로 짓빨려들어간다.

《짓곳은 날씨땀에 아궁이에서 연기가 쏟아져나올 때 휘파람으로 하느님께 선호하여 바람을 불러와야 하느니라!》

사내는 저도 모르게 눈굽을 훔친다. 김댕이로 얼룩진 불타구니로 시뻘연눈물이 본의 아니게 사내를 괴롭힌다.

사내는 짓곳은 듯 휘파람장난을 그만둔다.

- 에라 될대로 되라지!

사내는 부엌의 널마루우에 엉땡이를 퍼더버리고 힘없이 주저앉는다.

책상에 마주앉아 시험공부에 열중하던 아들너석이 보이지 않는다.

부엌아궁이에서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집단연기를 살펴보며 사내는 허구프게 웃는다. 집안을 짝 배우는 연기 때문에 또한번 다시 갑자르는 결심, 에라 돌아오는 공일날 구들장을 들어봐야지! 이번에는 꼭 구들을 훑을거야!

공일날은 빨리도 찾아왔다. 너무나 화려한 봄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앳아가는 신성한 봄날이다. 산마다 울긋불긋 다투는 연분홍진달래의 가너린 꽃이파리들이 삶에 주억거리는 인간들을 산으로 부른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일날이었지만 사내는 연기땀에 내린 결심을 또 한번 짓뭉개버렸다. 산이 넘보는 그 아련한 봄빛의 유혹에 아니, 삶의 지저분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용히 산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찾은 산의 길이다.

사내는 공일날 아들너석과 함께 봄의 신선한 야경을 찾아 그리려고 산길을 톱았다...

언젠가 사내가 들려주던 동화책을 펼쳤

다.

아픔으로 가득찬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파는 여자아이》이다.

끓주림과 추위에 허덕이는 《성냥파는 여자아이》의 그 고된 삶이 또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내의 쪽 꺼진 얼굴을 불러다준다.

책의 갈피마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내의 지친 모습 때문에 《성냥파는 여자아이》의 운명을 더 엿볼수가 없다.

붓스그레 찬바람에 탄 얼굴에 하냥 천진한 웃음만을 담고 애어린 소년의 동심을 울려 한뼉 동요작품만 파졌다고 소시적 그 마음을 터놓던 사내,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마다 손에서 놓이지 않는 안데르센의 《성냥파는 여자아이》, 사내는 결국 《성냥파는 여자아이》의 그 부름을 받고 동화를 찾아, 아니 영원한 소년의 황홀한 금지어로 죽음의 《도시락》에 매인 인연을 찾아 가지않았을가?

오늘을 거슬러 처연한 아픔으로 사내를 불러 어린이나 동화세계에 달려간 사내의 연기에 그슬려 찌든 얼굴모습을 보고만 싶다. 물빛같이 하얀 마음으로 삶을 좁던 사내, 그 사내를 기리는 마음으로 저 세상에 이 글을 날려보낸다.

짓곳은 집살림을 헤친다고 로씨야장사길로 나서는 안해를 말리는 사내를 안해가 부득부득 밀어제치고 집을 나간지 삼년, 소식 없는 안해의 기다림으로 마른 랑불을 젓혀가며 텅빈 가슴을 불안고 사내의 두터운 두꺼비손으로 아들너석을 꿰어먹이면서 동요를 잇던 사내의 삼년, 인생에서 사내의 삼년은 영원한 아들너석의 그늘이 되어 저 하늘나라 구름우에서 술곳이 내려다볼것이다.

.....

보고 봐도 또 보고 싶네

가고 가도 또 가고 싶네

.....

누군가의 애탄 가슴을 허비는 처절한 부름이 아님밤중의 흥두께로 튀어나온다. 그러나 그 부름대로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끝없

단편소설

이 그리움을 타는 욕망, 가고 가고 또 가도 오직 가고만 싶은 그 허전함에 오늘도 지친 하루를 슬그머니 접어둔다.

산은 인간의 커다란 모습을 담은 마음과 같다.

사내는 아들녀석의 대견한 그 모습들을 렌즈에 담기에 너무나 지쳤다. 한편 봄을 맞아 너무나 이른 첫 산행이라 아들녀석의 당혹한 모습보다도 산발을 타는 야한 모습 때문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피곤기도 외면한채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아들녀석의 뒤 모습을 따라 부지런히 다리를 절룩거렸다

《아버지! 아버지이 -! 아 - 버 - 지 - 이 -!》

아들녀석의 부름소리가 가까이, 아니 저 멀리로부터 간혹스레 산발의 맥을 타고 귀방울에 맞혀온다.

《철이야! 사랑...》

사내는 《사랑》에 그만 부름소리를 입속에 담아둔다.

래년이면 고중입시를 준비할 아들녀석에게 《사랑》이란 두글자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사내는 히죽 웃으며 깡마른 목은 풀더미 위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철이야! 아무쪼록 훌륭하게 자라거라! 이 애비의 나만의 하나의 소원이란다.》

사내는 나무숲에서 얼른거리는 아들녀석의 빨간 등산모를 찾아 눈길을 모았다.

순간 불쑥 느껴오는 안해의 갈끔한 얼굴 모습이 저쪽 산마루의 등성이우에서 태양의 하얀 빛발을 타고 사내를 부른다.

하얀 한복단장으로 햇살에 몸을 비벼대는 안해의 모습은 하얀 햇살의 조화속에 하얀 빛발로 산마루에 하얗게 무수히 쏟아져내린다.

《여보...!》

사내는 커다란 입을 헤벌리고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앞이 캄캄했다. 꼭 감은 눈앞에서 무수한 별찌들이 깜박이며 사내의 두눈을 파고

찌른다.

사내는 천천히 들숨을 모아쉬더니 조용히 두눈을 떴다.

보이지 않던 빨간 등산모가 획 - 포물선을 그리는가싶더니 아들녀석의 당혹한 눈길이 한곳으로 굳어진채 움직이지 않는다.

사내는 흔들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곁에선 개암나무줄기를 붙잡았다.

《철이야!》

사내의 눈길이 헛갈렸다.

가까이 다가오던 안해의 모습이 순식간에 햇빛이 멈추는 서산마루에서 산산히 부서져내린다.

《여보!》

사내는 야릇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수습할수가 없었다.

간혹스레 야하게 달려오던 안해의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한집에서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오던 그때가 그리웠다.

-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래소리가 가슴아프게 어디선가로부터 맞혀온다.

눈앞에서 아들녀석의 빨간 등산모가 숨막꼭질한다.

사내는 나무숲에서 얼른거리는 빨간 등산모를 따라 힘겨웁게 눈길을 준다.

산마루에서 하얗게 쏟아지던 안해의 햇살이 부연 저녁노을속에 고개를 꺾었다.

사내는 주춤거리며 주섬주섬 배낭을 다시 추슬러지었다.

《아버지!》

《아이구 깜짝이야!》

사내는 등뒤에서 울리는 아들녀석의 부름소리에 헛갈리는 사유들을 모으며 돌아섰다.

《아버지! 진달래...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진달래. 올해에도 진달래는 산마다 봄바람을 타고 활짝폈어요.》

사내는 아들녀석이 내미는 진달래묵음을 받아들였다.

빨간 꽃잎에 맞혀오는 아들녀석의 눈빛이 맑은 샘으로 찰랑거렸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진달래의 빨간 꽃잎을 만지작거렸다. 너무나 부드러운 꽃잎이 안겨주는 자연의 사랑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아들녀석을 뒤에 두고 산을 내렸다.

손으로는 여전히 진달래의 빨간 꽃잎을 만지작이며.

《그래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산마다 새 세계를 장식해주지. 그러나 내마음의 <진달래>는 오늘도 오는 봄에 따라 내 마음에 꽃망울을 터뜨릴가?》

《아버지, 올해에는 엄마가 돌아올까요?》

아들녀석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나무숲을 헤치고 짱 - 하고 날아왔다.

《올것이면 으레히 오겠지! 안올것이면 또 몰라도...》

사내는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와삭와삭 나무숲을 헤치며 내려오는 아들녀석의 당돌한 물음을 간단하게 회피해버렸다.

《어쩌면 네놈이 고중입시때면 꼭...!》

사내는 봄바람에 젖어드는 눈시울을 우둘투둘한 두손으로 꺾꺾 눌렀다.

그리고는 햇살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서산마루의 높은 하늘을 오래도록 쓸어 보았다...

《철이야! 안되겠다. 너 외가집 큰아버지댁에 가서 오늘밤을 자거라!》

사내가 아궁이로부터 쏘어나오는 연기뿔에 눈물을 쏟으며 책상에 마주앉아있는 아들녀석을 불렀다.

《그러면 저녁은...》

《산에서 남겨온 빵이나 대충 먹고말가? 오늘밤엔 아마 비가 내리려나 봐! 이 연기뿔에 어디 불을 뿜수가 있어야말이지! 아무튼 너만은 집에서 자지말라!》

사내는 주춤거리며 서성이는 아들녀석에게 배낭을 헤치고 빵을 찾아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녀석의 멈칫거리는 눈길을 피하며

사내는 다시 부엌에 내려섰다.

보란듯이 마구 몰려나오는 연기가 마치 아궁이를 구새통으로 알고 줄달음친다.

사내는 책가위를 들고 아궁이앞에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지 손을 멈추면 연기는 무엇이라 부르거나 한듯 줄달음쳐 나온다.

《에라!》

사내는 움쭉 부엌에서 일어섰다.

《될대로 되라지! 아무튼... 그러니 안해가 집을 나가서 3년철이되는 올해까지 구들고래 한번 훑어보지 않았으니 내굴만도 하지..》

사내는 심성사납게 긴 한숨을 톱더니 쏘어나오는 연기를 그대로 두고 부엌에서 나와 집안에 생긴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놓았다. 그리고는 검댕이가 치발린 얼굴도 씻지 않은 채 침대우에 벌렁 드러누웠다.

낮에 산발을 탄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피곤기가 엄습해왔다.

사내는 얼굴을 씻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침대우에서 편안함을 찾아 몸을 풀었다...

안해가 돌아왔다.

화장기가 짙은 갈끔한 얼굴에 그린 쏟아지는 햇살을 그대로 담고 출입문을 떼고 아들녀석을 불렀다.

사내는 아들녀석을 찾는 부름소리에 침대우에서 얼굴을 들었으나 힘에 겨웠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다.

안해는 집안의 비인 공간에서 아들녀석의 그림자를 찾아 눈길을 쓸더니 진붉은 석양노을과 함께 출입문에서 사라졌다.

《여보! 여 - 어 - 보...!》

사내는 크게 웨치며 침대우에서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무거웠다.

까아만 어둠속에 매캐한 냄새가 목구멍을 간지럽히며 머리를 때렸다...

꿈이었다.

낮에 산발을 타고 느꼈던 안해의 모습이

단편소설

햇살과 더불어 진붉은 석양노을과 함께 또 한번 사라진것이다.

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니 집안을 메우던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부엌아궁이의 석탄이 모두 타버렸는지 이젠 연기도 쏘어나 오지 않는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의 널마루장을 덮고 쌀쌀거리는 저녁밤의 칙칙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열어놓았던 문들을 하나하나 닫아걸었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우에 몸을 누였다.

안해가 보고싶었다.

별스레 한낮부터 찾아오는 안해의 야릇한 모습이다.

사내는 가슴우에 두손을 포개고 었었다.

가슴우에 손을 포개고 잠을 자면 자기가 소원하는 꿈이 찾아 온다는것이다.

사내는 한낮의 햇살을 찾아 안해의 빛발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잠시라도 한낮의 쏟아지는 햇살속에 눈부시던 안해의 황홀한 모습이 보고싶었다.

사내는 억지로 꿈을 헤집고 잠을 청했다...

너인의 울음소리가 한밤의 고요를 깨고 앰블렌스에 실려가는 사내의 굳어진 가슴에 퍼런 멍으로 부딪힌다...

사내의 꿈이 아닌 현실로 잠결에 찾아주었던 안해였다.

텅 비인 공간에서 고개를 주억거리며 꿈으로 안해를 찾아헤매는 사내를 한것이나 쓸어보던 너인이 비인 아들너석의 자리를 찾아 자기의 오빠댁으로 발길을 돌렸던것이다.

탕- 요란한 문소리가 아름다운 꿈의 나라에서 헤매이던 사내의 꽃같은 사유를 형클어뜨리고 사내를 잠결에 불러깨웠다.

그러나 사내는 다시 잠을 불러 꿈을 찾아 가슴우에 두손을 포개고 안해를 그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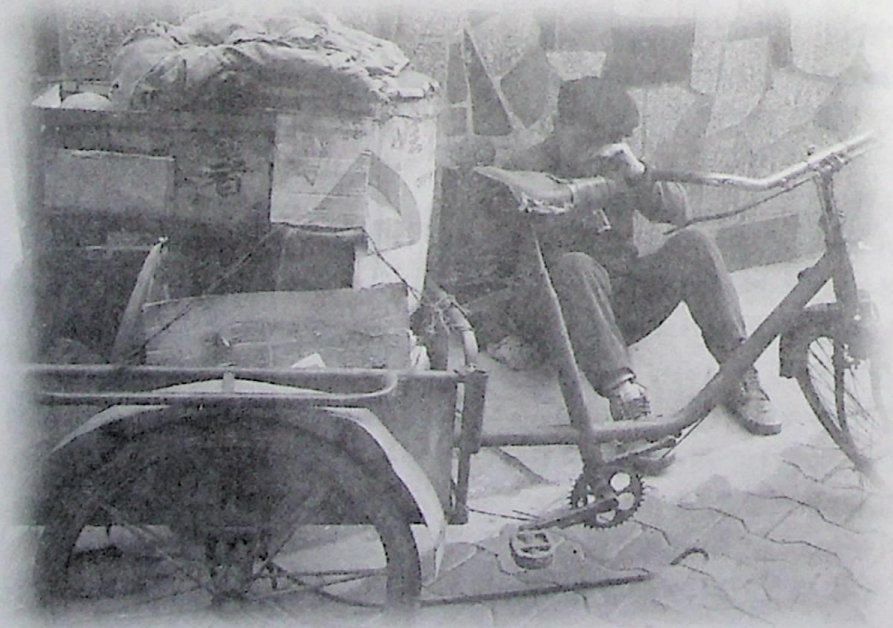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이...!!!》

아들너석의 끈기는 부름소리가 앰블렌스에 실려가며 들추어대는 담가우에서 처연히 맴돈다.

《아버지! 엄마가... 엄마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 아, 아, 아-버-지이...!》

아들너석의 애탄 부름소리가, 안해를 찾아 영원히 잠든 사내의 굳어진 가슴우에 눈물로 알아볼수 없는 지도를 그리며 석연히 얼룩져갔다... ♥

E-mail:hl-jtx@hanmail.net



우리들의 뿌리

- 나와 단천 김해김씨

김태욱

- 뿌리없는 나무는 살수없다고 나에게 증조부님과 조부님 그리고 부친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을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촌동생들과 룩촌동생들 그리고 그밑에 딸려있는 수십명의 조카들은 모두가 우리들의 뿌리가 과연 누구인지 이름도 모를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릴 때 조부께서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부친께서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섯살 때 마지막으로 본 증조부님의 모습을 기록하여 이 세상에 두고두고 우리의 뿌리를 곱도록이 물려주고 싶다.

증조부님의 성은 김해김씨(金海金氏)이고 함자는 시화(時和)이다. 조선 함경남도 단천군에서(1860년대) 태어났는데 부친은(나의 고조부)김용직(金勇稷)이라 부르는데 무관출신으로 리조말기에 임금으로부터 《중랑장(中郎將)》이라는 직위를 제수받았고 모

친(나의 고조모님)은 임금으로부터 《숙진부인(淑珍夫人)》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처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한 증조부는 일찍 초시에 급제하여 글 잘하는 벼들과 널리 사귀며 출세의 앞날을 기다리면서 아들 4 형제 딸 2 형제를 슬하에 두었다.(나는 맏아들 김병현의 둘째 손자이다.)

당시 함경도에서 증조부가 타고 다니는 말발굽 자국만 봐도 사람들은 《오! 시화초시가 다녀갔구만》라고 말했으니 증조부의 사회적 직위와 인품과 위신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

다. 내 나이가 다섯살, 아이때부터 말 잘하여 총명한 기질이 있다고 증조부는 어린 나를 무릎우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쳤다. 거침없이 받아외우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이놈이 장차 커서 문장가가 되려나?》 하면서 대견해 하셨다.

1942년 겨울 음력 11월에 우리집에 재난이 들이닥쳤다. 전염병에 걸려 온집식

살아가는 이야기

구가 들어누웠는데 불행하게도 세살짜리 귀여운 너동생이 먼저 숨졌다. 며칠후 고열에 시달리던 증조부도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것처럼 갈망하던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던 것이다. 나도 그 열병에 련속 두번이나 걸려 앓다보니 거의 죽다살아났다. 그후에 안 일이지만 그병은 왜놈들이 세균전에 의해 전파된 병으로써 중국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근원이었던다.

나의 조부와 부친은 친척들과 함께 한다 하는 풍수를 청하여 묘자리를 정하고 증조부님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집 중간방에다 증조부의 지위를 모신 상문을 만들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끼를 꼭꼭 진지상을 지어 올렸고 일년치고 전통명절인 한식, 단오, 추석, 춘절은 물론 3년간 돌제사 때마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상차리고 마을의 이웃들과 친지들을 대접하였을뿐만아니라 3년간 배감투를 받지않고 효자의 도를 다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왜놈들이 망했다.

나의 조부께서는 손자, 손녀들을 앉혀 놓고 눈물을 씻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 너희들의 증조부는 독립운동가였던다. 흥범도장군의 밑에서 한개 중대의 의병을 거느린...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리완용을 비롯한 매국 5적에 의해 1905년에 《을사망국조약》이 체결되자 5백년 역사를 기록하던 리씨조선은 하루아침에 망하고말았다.

증조부 김시화초시는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통탄의 눈물을 뿌리며 갓을 벗어 농 짝에 넣고 머리에 두건을 썼다. 그리고 붓대신 장검을 잡고 말을 탈 대신 다리에 행건을 치고 미투리를 신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두자루의 외발배기권총을 찌르고 나섰다. 워낙 호협한데다 일찍 문장가로 이름이 났던지라 따르는자가 많았다.

흥범도장군의 수하에서 중대장직무를 맡은 증조부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족들을 아들에게 맡기고 수년간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를 타격하는 혈전에 나섰

다.

나의 부친이 일곱살 되던해였던다. 어느날 산에서 내려와 집에 잠시 들린 증조부께서는 그만 일본군토벌대에게 뒤를 밟힌줄을 몰랐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기쁨의 회포를 풀사이도 없이 집은 순식간에 물샷틈 없이 포위되었다. 왜놈들이 집안팎을 살살히 수색하였다. 하지만 김시화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밀고를 받고 포위했는데도 그이를 못찾게 되니 왜놈장교는 탄술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칼찬 장교놈의 눈에는 아홉살에 나는 셋째아들 병길이가 만만해 보였는지 상관대기에 거짓웃음을 발라가며 짐짓 《너 착한 어린이지. 내말 잘 들으면 좋은걸 많이 많이 준다》고 하면서 바깥구새목 으쓱한데로 끌고가서 알사탕 한줌 내밀면서 꼬드끼기 시작했다.

《너의 아버지 어디에 숨었지?》

그러나 사탕도 보지않고 《아버진 안왔소!》하고 당돌하게 대답하니 왜놈장교는 이번에는 동전 한줌을 꺼내어 병길에게 내밀면서 《너 바른대로 말하면 이 돈 다 준다》고 구슬리기도 했다.

《난 몰라!》하고 병길이가 맴짜게 쏘아붙이자 왜놈장교는 《바가야로, 나쁜놈이 자식》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 어린 병길이의 량쪽 귀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리고 도 성차지않았는지 서리발같은 지휘도를 쑥 뽑아 추켜들고 온집식구들을 불러내서는 불온분자 김시화가 집에 오면 꼭 보고하라고 엄포를 놓고는 벼룩썩은 개상통을 해가지고 줄개들을 끌고 창황히 돌아갔다.

그날 왜놈장교에게 곤욕을 치른 병길이는 나의 셋째 조부이다.

그후 증조부는 일본제국주의 주구단체인 《민회》놈들에게 체포되어 단천군 《민회》놈들이 설치한 감옥에 갇혔었다.

그때 단천군의 수많은 백의 동포들은 《민회》사무청사 앞에 모여 정좌사위를 하고 한 목소리로 《김시화초시를 석방하라!》고 웨쳤단다.

그시기 흥범도장군과 김좌진장군은 각기 북간도와 서간도에 전이하여 활동했다. 《민회》 놈들은 더 큰 민중봉기가 터질가봐 백성들에게 《시화초시가 더는 반일의병 못하게 해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마지못해 석방하는척 했다.

그날밤, 출옥한 증조부는 《네놈들과 한 하늘 아래서 살수없다!》고 둘째아들 병수(나의 둘째조부)더러 가솔을 데리고 북간도 처가친족을 따라 도주하게 했으니 그곳인즉 오늘의 길림성 화룡시 서성진 장항촌(옛날에는 리원촌)이었다. 그리고 증조부는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만아들 식구들과 두 아들을 데리고 빈몸으로 고리짝하나만 지고 김좌진장군이 활동하고 있는 서간도를 향해 낮에는 숲속에 숨었다가 밤길을 걸으며 오늘의 길림성 장백현 12 도구에 당도하였다.

이번 도주로하여 대를 이어 내려오며 안거락업하던 가문은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난은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증조할머니와 할머니는 밤낮으로 남들의 샅일을 해야했고 15 세좌우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셋째 조부와 넷째 조부는 매일 등짐으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1920년 경신년, 왜놈들의 토벌에서 겨우 화를 면한 집식구들을 거느리고 증조부는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해산을 거쳐 류리걸식하면서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며 동으로 동으로 걸었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백두밀림을 지나며 때로는 온 식구가 바깥에서 우등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한다. 도중에 병자가 생기면 런머칠 묵새기기도 하다보니 달포 지나서야 무산에 도착하여 두만강을 건너 오늘의 화룡시 서성진 장항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둘째아들 병수가 처가친척들을 따라와 살고있었다.

다행히 둘째아들 병수가 여기 저기에서 주선해 주는 대로 그나마 온집식구들이 먹는 문제가 그나마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밥이 한때기도 없는 처지에 앞으로 어찌 살것인가? 최후로 내린 결론이란 뿔

뿔이 흩어지는것이다. 증조부와 증조모님은 나의 조부와 함께 안도현 명월구 일대에 가 자리를 잡고 부친은 그때 나이가 열일곱살인데 마을에 제일 부자집인 조선 함경남도 리원군 배덕리에서 장항촌을 개척한 전주리씨네 집에 머슴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계약이란 머슴삯전대신에 부친의 나이가 들면 가정을 이루어주고 먹고 살수있는 땅마지기나 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나의 부친은 1905년 김해김씨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김창규, 어릴때부터 조부님의 의병운동으로 인하여 파산된 가정에서 자라다보니 서당에 한번도 다니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서간도에서 북간도에 도착하여 리씨댁 머슴으로 들어가니 주인령감은 부친의 일숨씨에 훌쩍 반할만큼 일을 잘하니 모든 일을 부친에게 맡겨서 일을 시켰다고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친의 나이가 스물다섯에 달했다.

주인령감은 하루빨리 성가시켜 주려고 몇몇집에 혼담을 걸었으나 누구도 머슴군에게 귀동너를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로씨야에서 온 강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마을사람들게 《로씨야에서는 무산대중의 정권을 잡고 지주와 자본가가 없이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로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말라는 지도사상 밑에 누구나 일하면 잘 먹고 잘 살수있는 나라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이런 선전을 귀담아들은 머슴군인 부친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머슴생활을 때려치우고 로씨야에로 갈것인가? 그는 몇몇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론하기 시작했다.

밭없는 말이 밤새에 천리를 간다고 마을에 뜬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자 급해맞은 주인집령감은 마을의 권위인사 강씨어른을 내세워 자기의 열여덟살나는 딸과 혼약을 맺게 하였다.

세상일이란 이처럼 괴이하게 변져갔다. 머슴군이 일약 하루아침사이에 주인집 딸과 혼인하게 되니 기문이 아닐수 없었다.

살아가는 이야기

이번 혼인으로하여 로씨야 계획은 물론 무산되었지만 그 훗날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그 누구도 몰랐었다.

이듬해 봄에 스물여섯살나는 머슴군 김창규와 주인집 둘째딸 리족남과의 혼사는 김씨가문의 새로운 부활의 시작으로 되었다.

명월구에서 살던 증조부와 조부와 조모께서는 부친이 새 살림을 차리고 있는 장항촌으로 이사왔다. 그때 증조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부친의 이번 처사는 가문의 장손으로서의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다. 부친은 평생 근로하게 로동하면서 우로는 이상분을 모시고 슬하에 자식 6남매를 키웠다. 나의 우로는 형님 한분과 누님 한분이 계셨고 아래로는 녀동생들과 막내 남동생이 있다.

증조부께서는 이미 백발의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동포애만은 항시 그대로 있었다. 늘쌍 젊은 혈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가 옛 이야기로 입에 오르곤하였다.

그러나 것처럼 나라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던 지난날은 옛 이야기로 되었고 백발을

날리며 만년을 손자가 차려주는 따스한 밥 한술 뜨는것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것처럼 갈망하던 조국의 독립도 못보시고 돌아가신 증조부님, 그때 증조부님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시던 할아버지와 둘째할아버지, 그리고 셋째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오늘 이 글을 감히 우리의 김해김씨외의 인간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선조들에게 새삼 감사를 드리고싶다.

물론 건설한 뿌리에서 든든한 나무가 자랄수 있듯이 독립운동의 의병장이셨던 증조부님의 온건한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들, 김해김씨가문의 우거진 나무가 있을수 있는것이 아니였을까?!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땅의 뿌리로 되신 증조부님, 그리고 선조들이여 고이 고이 잠드소서!

김해김씨가문의 앞날은 영원히 창생할 것입니다. ♥

2005년 8월 3일 서성에서 탈고



쌈터로 향한 길

최진옥

오늘도 새벽의 어스름을 헤치며 쌈터로 향했다.

구월의 새벽 날씨는 제법 쌀쌀한 기운으로 감돌고 있다. 자전거를 잡은 열손가락들이 새벽의 차가운 기운에 꼬부라들었고 흠바지를 입은 무릎팍이 찬기운을 느끼면서 썩늘한 감각이 한몸 가득 안겨온다.

자전거를 타고 뉘연한 산길을 오르다가 가파로운 곳에서부터 힘겹게 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중턱에 오르자 날이 희뵤이 밝아오면서 밤의 정체를 야금야금 들어내기 시작한다. 풍년을 자랑하는 가을의 전야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넘실대는 곡식과도를 따라 설레인다.

벌써 약삭빠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며 산길을 내리고 있었는데 등에는 물통을 넣은 멜가방이 매워져 있었고 손에는 조그마한 손전등이 쥐어져 있었다. 물통을 들고 지고 천천히 산길을 내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 새벽문이 활짝 열리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른새벽 첫 정기를 담은 쌈물을 마시면 기운이 솟는다는 말을 신조로 알고있는 그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새벽의 어둠을 헤쳤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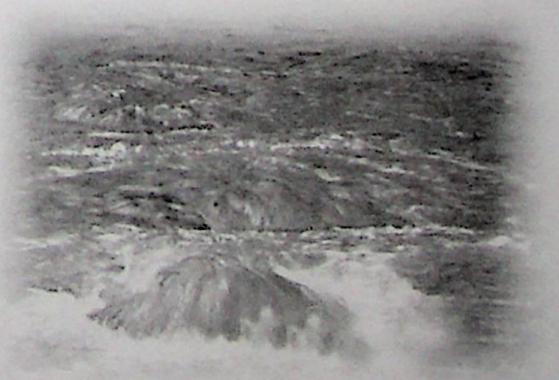
쌈물길은 군체에는 사십대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였고 휴식일이면 가끔 중, 고중학생들도 끼여 한결 젊음의 이채를 돋구어 주고있다.

어떤이는 신체단련을 위하여 매일 해가 뜨는 시간 혹은 해지는 시간에 근육을 느슨하게 하여 피로를 풀곤 한다. 그리고 또 어떤이는 쌈물을 마시기 위하여 하루 일정의 여

유시간에 쌈터를 찾는다고들한다. 이 가운데는 신체단련도 하고 하루의 일에 지친 자식들에게 쌈물을 길어다 주기 위하여 매일 쌈터를 찾는 로인들도 있다. 당신의 건강도 지키고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맑고 정가로운 쌈물에 담아 전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야말로 핑 먹고 알 먹고 등지털어 불때는 격이어서 일거양득이라 한다.

지금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형태의 부단한 변화와 함께 우리의 주변 환경이 많은 오염을 받고 있다. 공기가 혼탁하고 음료수가 오염받고 먹고있는 쌀, 채소, 고기마저 연기, 생활쓰레기, 공업폐기물, 농약, 첨가제 등으로 정도부동하게 오염을 받고있어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과 주변의 생물보호 방지대책으로 이 세상에 내어놓은것이 바로 록색계열식품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다스리고 폐기물을 정제하고 유기제품을 사용하는것 등.



살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자연산이 그래도 사람들의 각광을 더 받고있는 추세이다. 같은 입쌀이라도 평강별록색입쌀이 맛이 좋고 맑고 공기 좋고 경치좋은 승선입쌀 또한 그 맛이 유별나다고 한다. 또한 같은 채소라도 시내구역에서 가꾼 채소보다 농민들이 산에서 가꾼 채소가 더 잘 팔린다. 값은 더 주더라도 산나물, 산열매, 산버섯을 사먹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해감에 따라 건강에 중시를 돌리고 또 오염국면을 다소라도 개변해보고저 모지름을 쓰던끝에 눈길을 돌린 곳이 바로 여기의 이 샐터인줄 안다. 그것이 해가 되고 달이 바뀌면서 한사람 두사람 확대되어 나선것이 오늘의 샐물길는 대오를 형성했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하루의 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 아침 일찍 기상하여 보건체조를 한다거나 태권도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물 길으러 산에 오른다거나 하여간 여러가지의 활동으로 건강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음료수의 질이 떨어지면서 나도 점차 샐물길는 대오의 한 성원으로 이렇게 따라 나섰다. 신체단련도 활검 시원한 샐물을 길어다 마시고 밥도 끓이고 국도 끓이면서 내 가족의 건강을 내가 지켜주자는것이 나의 샐물

길는 동기였다. 길어온 물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전거를 밀고 샐터로 가는데 대개는 5일정도에 한번꼴로 가게 된다. 시간이 늘 딸리우다보니 새벽이면 늘 물 길러 나서는데 산을 오르내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지곤 했다.

- 생명은 운동속에서 연장되고 운동이 정지되면 생명도 정지된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자!

샐물은 오늘도 뚝뚝 쉬임없이 솟아올라 목 마른 사람들의 갈한 목을 추겨주고 샐터로 향한 길은 오늘도 래일도 활짝 열려있다.

우리의 인생길도 샐터로 향한 저 길처럼 끝없이 펼쳐져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각종 암병발생률이 전에없이 높은것은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임을 특별히 지적하고싶다.

하여 우리 모두 부지런히 노력하여 주변의 한정된 생활범위권내에서 건강의 길을 탐색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명지한 선택이 아닐가 생각해본다.

샐터로 향한 길, 그 길은 정녕 건강을 신고오는 길이고 행복을 신고오는 길이며 우리 한 가정, 나아가서는 모든이의 안녕을 지켜가는 길이 아닐가?! ♥

2005년 9월 24일



최진욱

화룡시수리국.

수필 《아버지가 엮은 샐자리》가 제 3회 중국조선족어머니수필 응모에서 동상 수상. 수편 발표.

군인남편과 엄마, 그리고 선산을 거절한 아버지

안 수 복

아버지의 림종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평생을 살점처럼 사랑해온 자식들을 하나하나씩 눈빛질하고는 당신이 늘 보배처럼 여기던 가방을 가져다달라고 하셨다. 눈치빠른 아들이 제격 가방을 가져다드리니 아버지는 열라고 손시늬를 하였다.

가방안에는 우리 오남매의 생년월일과 띠별로 적혀있는 종이 몇장과 엄마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색바랜 사진이 들어있을뿐 다른것은 없었다.

- 내가 죽은 다음 골회를 안장하지 말고 하늘로 날려보내라!

아버지의 림종전의 유언이었다.

- 아버지, 선산에 가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한결같은 물음이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버지는 8남매의 여섯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려사이다보니 집안에서는 막내와 다름이 없었다. 아버진 제형제도 많았거니와 사촌도 많아 남자만 일곱형제로 뺀은 대가정을 이룬 집안이라 가문에 상사가 나면 으러히 큰 비석을 세우고 비석주위에 봉분을 만들고 골회를 안장하고 해마다 청명절과 단오, 추석날을 빼놓을세라 고인을 추모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가문

의 선산이라 일컬었었다.

아버지의 첫 안해도 병으로 꽃같은 나이에 선산에 묻히었는데 고집스레 유언을 남기시는 아버지가 리해되지 않았다.

조선족풍속습관에 따르면 아버지는 부모형제와 사촌, 전처가 묻힌 선산에 가는것은 당연한 일, 명지한 도리인데... 더구나 당신 생전에 엄마가 전남편이었던 군인남편이 그리워 늘 가만가만 눈물을 훔치며 녀두리 하는것을 싫증나도록 보아왔음에라.

늘 군인남편을 떠올려 집안에 팽팽한 분위기와 난감한 장면을 만들어내던 엄마와 아버지 정말 서로가 사랑이란것을 했을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가 아기자기 끄적하게 보내는것을 한번도 본적없거니와 한번도 한이불을 덮는것도 보지못한 우리들이었다. 어찌다가 친구집에 놀러가면 한이불을 덮는 친구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러울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혼후, 남편하고 살아오면서 나는 별다른 의심까지 들었었다. 우리 다섯형제가 도대체 아버지, 엄마의 친자식이 옳은것인가고?

어섯눈을 뜨면서부터 나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부지런한 생산대의 소사양원이였고 엄마는 알뜰하고 이악스러운 농촌부녀였었다. 당년, 아버지는 집과 소사양원실을 하루

살아가는 이야기

에도 수십번씩 오가면서도 집일을 도와 밤이면 엄마와 함께 가마니를 짜느라고 허리펴일 째조차 없이 땀이처럼 돌아왔다.

엄마도 물론 생산대의 로동일외에도 닭, 개, 돼지치기에 눈코뜰새 없었다. 그때 돼지 풀을 뜯어오르던 엄마의 끈질긴 잔소리가 얼마나 귀찮던지? 솔직히 지난세월,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가는 우리 다섯형제의 도시락을 싸는 엄마와 밤마다 우사칸에서 외롭게 밤을 보내는 아버지를 대하면서도 나의 공부에만 집념할뿐 부모님들의 고생은 모든 천하부모들의 직책과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엄마와 아버지의 고행과 고충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릴줄을 몰랐었다.

아버지의 소사양원노릇은 장장 25년이 나 지속되었다.《생과부》로 된 엄마는 아침이면 아침밥잡수시러 오신 아버지앞에서 늘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땡강땡강 그릇소리를 냈는데 난 그때 무슨 감투끈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내가 아홉살일때 아버지가 대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번 수술이 엄마와 아버지의 밤생활을 영원히 앓아갔었다는것을 내 나이 40을 넘어서야 겨우 알았었다. 세월이 흘러 나도 결혼하고 아이낳고 그것도 열여덟살 아들을 둔 엄마로 된 오늘에야 비로소 절실히 깨달을수 있었던것이다.

분결같은 살결에 오동통한 엄마는 열여덟살 되던해 범박골에서 화수촌(지금의 화룡시투도진)으로 시집을 왔는데 결혼 열흘만에 참군령이 떨어진 전남편을 전선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불운을 지니게 되었었다.

비록 시집을 왔다하지만 나이 어린것도 원인이었지만 시부모님들앞이라 체면과 부끄러움에 감히 무엇이 부부잠자리라는것도 모른채 시어머님과 한방에서 지내다가 겨우 결혼 열흘을 명의상부부로 보내다가 남편을 총탄이 비발치는 전선으로 선뜻이 보내여야만 하는 엄마의 애탄 사연을 그 누가 헤아릴수 있었을까?

끝내 리별의 그날이 다가왔다. 땡 - 땡 기적을 울리는 련차를 두고 엄마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떠나는 남편의 얼굴도 똑똑히 볼수도 없었다.

- 잘 있소. 련순이, 내 꼭 살아... 돌아올게!

하지만 무정한 련차는 새 신랑의 애절한 웨침소리를 삼켜버리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짖으며 차와 함께 달리는 엄마를 뒤꽂무니에 내쳐버리고말았다.

남편이 참군하여 어느날, 장춘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장춘전역 - 3대전역에 참가하는 군인들의 가족에서 면회를 오라는 반가운 기별이었다. 자나깨나 보고싶은 랑군님이요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남편소식이었지만 시어머님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엄마는 그만 주저앉고말았다. 18년을 키운 아들을, 그것도 결혼하여 열흘만에 참군하여 이제 전선으로 보내여야만 하는 시어머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였기에 곱도룩이 물러서고말았던것이다.

그후, 전쟁이 끝나고 전국이 해방되었지만 엄마의 군인남편한테서는 아무런 소식도 날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시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민정부문의 산하에서 꾸리는 식당일을 하면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남편을 기다려왔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지나갔다. 어느날 간부웃차림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계시는 시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지, 애꿎은 가슴에 찬서리를 내리다니! 그렇게 애간장을 끓이며 10여년을 기다려온 남편소식이란 고작 한장의 련사증에 그칠줄이야?!

현실의 참혹한 타격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말았다.

- 국범동무, 살아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것이 10여년을 애타게 기다려온 보응인가요? 네?! 야속해요! 외팔이, 외다리, 소경, 외...라도 좋으니 난 당신만을 가지겠어요. 제발 나에게 당신을 돌려주세요. 나, 이제 당신없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요? 네?! 국범...

엄마의 피끓는 절규이고 처절한 웨침과

몸부림이었다.

그후, 엄마는 지금의 아버지한테로 제가하여왔다. 아이하나 못낳아보고 돌이 금방 지난 딸애의 엄마가 되였었다. 우리 형제들이 태어나서도 아버지인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것 같았다. 밤낮 우사칸에 가 있어야 할 아버지였지만 잠잠의 시간을 리용해 가무일을 도왔는데 언제나 때시격불은 아버지가 전 담당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엄마는 조금만 당신의 비위에 거슬리기만해도 웅강댕강 그릇과 싸웠는데 그때면 아버지는 묵묵히 애탄 담배만 말없이 태우셨다.

지난 세월, 엄마의 고충을 알수 없는 나는 엄마의 성격때문에 힘들게 지탱해나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제 결혼하면 절대로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되지 않아 그 결심이 물거품처럼 무산될줄이야!

어느날, 남편과 리혼하려는 결심까지 품고 엄마한테로 달려갔었다.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하소연을 끝까지 듣고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 너한테 무엇이 모자라니? 아들에게는 뽀족하고 출중해 《전국조선족 10 대최우수소년》이지, 남편은 무던하고 부지런한데다가 너를 것처럼 아껴주지, 혹시 너희들의 밤생활에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부부간의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상히 말씀해주었다.

그날의 엄마, 야학교문앞도 가보지 못한 칠십고령의 엄마때문에 난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부끄러웠었다. 솔직히 내 남편은 나 무랄데라고는 없는 사람이였으니. 오점이라면 권세가 없고 재물이 없는것이 아니였을까?

그리고 엄마앞에서 고개도 숙여졌다. 엄마는 사실 74년의 평생에서 우리 형제 넷을 낳은 10 여년동안만이 남자 - 아버지와 함께 누릴수 있었던 부부의 밤생활이었던것이다. 그것마저 아버지의 소사양원벼슬덕에 남 모르는 유격전을 벌렸으니 결국 엄마의 독수

공방은 얼마나 외로웠을가? 엄마의 말을 빌면 《한뉘 과부생활을 했다》는 녀두리였다.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와 생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다섯형제들을 고중공부 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내주었으며 남들이 큰언니가 전처의 딸이라는것도 모르게 정성을 몰부어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적에 엄마, 아빠가 다툰것도 싸움이 아니라 사랑싸움이였었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은 그토록 깊고도 깊은것이였고 보통사랑이 아니였다. 비록 생전에 엄마가 시도때도 없이 전 남편-군인남편을 떠올려 아버지를 여러 가지로 난감한 궁지에 몰아넣고 괴롭혔지만도.

- 군대남편이 살아돌아왔더라면...

임버릇처럼 하는 엄마의 이 말에는 첫사랑-군인남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묻어있었던것이리라!

엄마, 생전에 텔레비를 켜도 해방군들이 나오는 영화만 보았었다. 마치 군인들속에 자기의 전남편이 있기라도 한것처럼. 그러면서 또 가끔 눈물도 훔치곤 했었다.

그러는 엄마한테 못나게도 난 엄마의 가슴에 사정없이 칼을 박았었다.

- 엄마, 엄마의 그 군대남편이 살아계시었다면 우리 형제들은 생겨날수조차 없잖아요? 생겨나도 우리가 아니고 다른애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는 너무나 기가 막혀 《저 주둥일 그만 못다 물어...》 하면서 꾸념질을 하다말고 비자루를 거머쥐곤 하였다.

군인남편을 가슴에 품었던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겨름은 2003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서야 겨우 끝났다. 아버지한테 후처이다보니 사리밝은 엄마는 생전에 《골회를 날려보내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우리 형제들은 80고령인 아버지에게서 이제 타계하면 꼭 가문의 산산에 가시려니했었다. 그런데 천만뜻밖으로 아버지께서 감히 풍속대로 내려온 선산을 거절하고 하늘나라를 택하실줄이야?!

살아가는 이야기

우린 결국 아버지의 고티회를 하늘나라로 날려보냈다. 엄마한테로 고스란히...

생각해보니 결혼생활 열흘만에 군인남편을 전선에 내보내야만 했던 엄마는 전 남편과는 추억속에 숨어버린 그리움을 안고 살았었고 아버지와는 진정한 사랑의 금자탑을 쌓으며 살았던것같다. 엄마의 말을 빌면 살면서 아버지 병으로 돌아간 전처를 단한번도 입에 떠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를 엄마는 늘 《너네 아버지 참 독한 사람이야!》 하고 나무람했었다.

아버지, 엄마, 아니 군인남편을 그리워한 엄마와 선산을 거절한 아버지 두분의 사랑이 정말 보통의 대단한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하여 전처가 남겨놓은 딸하고도 한마디 상론도 없이 력대의 관습을 버리고 용감한 결정으로 선산을 거절하시다니?

아버지, 사랑을 위하여서라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을 진정 아버지의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생전에 엄마가 빠지고 토닥거리도 모르쇠를 대는 아버지였군요.

군인남편을 그리워하던 엄마, 아버지를 3년이나 기다렸지요? 이 셋째딸은 늘 꿈속

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있는 사랑의 집을 우리러 뵙니다. 따뜻한 온돌을 좋아하셨던 두분은 역시 생전처럼 초가이영에 쌍가마를 건 소박한 집에서 오붓하게 살고계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와 이승에서 살때처럼 눈에 잘 띄우는 바람벽에 전 남편 - 군인남편의 련사증을 번듯이 걸어놓고 《렬사증이 나의 남편》 이라며 아버지를 난감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디. 선산까지 거절하고 찾아간 아버지라 하늘나라에선 두분의 사랑이 그토록 지극히 아기자기 진지한가봅니다.

군인남편과 선산을 거절한 아버지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그토록 자식들앞에 돋보이는거겠지요?!

우리들은 오늘도 하늘나라 우리러 엄마와 아버지의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사랑의 향기를 한몸에 받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나라에서라도 당신 자식들을 굶어보시며 영원토록 행복하시소서...



2005년 9월 25일



안수복

화룡시 투도진 흥화음식점.
제 5회 전국녀성조선족백일장 우수상 수상. 수편 발표.

토 장

박규철

썩을대로 썩은 물건 세상에는 많건만
너만은 썩어서도 버리지를 못하누나
네가 뽑는 그 향기 군침을 돌게 하네

풍진 세월 헤쳐가며 속 썩인 보람 있어
식탁에서 빠짐없이 입맛을 돋꾸누나
너는야 속썩이며 산 엄마의 향기여라

론 개

- 전라북도 장수군에 론개사당이 있다

허충남

출신은 비천해도 의기만은 충천하니
나라의 흥망 두고 자기 한몸 아꼈으랴
전장을 잡는 거사에 순직한지 얼마뇨?

충의로 죽었거니 고향이야 잊을소냐
넋이와 더 잡으니 론개사당 예로구나
그녀의 숨결 어린곳 천추만대 빛내리.



락엽

허옥진

알수없는 사람의 령혼처럼
살포시 추락하는 락엽은
누구의 명함장인가요

매화의 매운 녀이 던져버린 입김입니까
아니면 순한 사슴이 울고 버리고 간
고름 딱지입니다

바람이 우려먹고 내버린 뼈다귀가
온 대지에 널렸군요

해빛에 투과되는 아롱한 뼈와 빨간 살이
숨소리로 들리는군요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 서서 다가 올 명함장들을
다 거둬들일순 없습니다

잇고 있던 그네들이 내 앞으로 다가 올듯합니
다

그 명량한 향기를 파아란 꿈을 참신한 즙을
죽음처럼 빨아들인 홍수인
해, 별, 바람들이
소작료를 받듯이 받아갔군요

이 한장의 명함장에
꽃, 풀잎, 향기, 과일이 주렁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성근한 땀이 날알로 남은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잎

신영남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퍼어런 슬픔이 묻어난다

바람이 아무리
겨드랑이 간지럽히여도
이리저리 몸만 꼴뿐
웃음을 잃어버린 불쌍한 이이

말없이
이슬도 미끄럼 태워주고
해살도 안아주고
공기도 맑게 해주지만

꽃과 열매 독차지 한다
사랑은
언제나

e-mail:quanshui521@hanmail.nat

녹슬은 대화

(안도)홍복너

아픈 사연 하나
마음 하늘에
못으로 박혀 있다

누구의 못난
망치질이였을가

저기 새벽 하늘가에
빛을 숨기는
희미한 별빛은
누구일가

언젠가는 쑥 뽑혀나올
녹슬은 못의
무게를 가늠해본다

찬란한 대화

(竹林)시림

단풍잎 하나
빙그레 웃으며
박우물에 실린다

보고 싶어 한여름
그리워 한가을~

황홀한 꿈 두 조각
차분히 마음 자락에 드리워
바람속의 무게를 달아본다
박우물속 깊이를 훑친다

박우물 하나
단풍잎 하나

고향의 정

(훈춘)김영능

동년에 꿈을 묻어 둔
초가 삼간
첫사랑에 순정을 감추어 둔
진달래동산
별을 바라보아도
뒤집 형님 생각
달을 바라보아도
앞집 누나 생각
아 -
세월은 가고
세상은 변했어도
내 가슴에 영원한
고향의 정아



잉어 (외 1수)

오기을

아버진 낚시로 잉어를 낚고요
 나는요 연필로 잉어를 그려요
 아이참 안타까워라
 아버지 낚시대엔 잉어가
 살려달라 꼬리쳐대고
 내가 곱게 그린 잉어는
 저기저 늪에 뛰어들러 팔딱팔딱 뛰어요

무제

연필은 운동원
 시험지는 운동장이래요

교과서는 심판원
 지우개는 응원대이지요

[명시감상]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요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주]: 이상 략력: 본명 김해경. 시인, 소설가.
1911년 서울 출생. 경상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총독부 건축기수로 일하기도 하였음.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음.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 《조광》지에 《날개》를 발표해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 1937년 일본동경대학 부속병원에서 28세로 요
졸함. 주요작품: 소설 《날개》, 《중생기》.

시 《오감도》, 《최후》, 《명경》 등 있음.

* 《이상시선집》에서 원문대로 선재했음.

나리꽃 처녀

한동해

풀향기 싱그러운 령길가에서
나리꽃을 꺾어주던 고향의 처녀
류학의 길 떠나가는 나의 손잡고
이슬눈에 미소지며 바래주었지

이국땅 학창생활 어려울때면
한가슴에 곱게 피는 빨간 나리꽃
농예사의 영예안고 어서 돌아와
너와 함께 고향산천 수놓아가리
야 하~나리꽃 고향의 처녀야
네맘 안고 배움의 길 다녀오리라

사랑의 새 열매

남희풍

봄이 오면 하얗게 꽃이 피어
연변의 산허리에 흰 구름 감돌고
가을이면 밭길 잡는 연변의 사과배어

할아버지 고향의 정어린 배나무
북국에 시집와서 정들고 살면서
풍설 헤쳐 시원하고 달콤한 열매 익어
천리에 향기 나는 사랑의 열매여

맛 좋은 사과배 연변의 사과배어
할아버지 마음인양 향기 풍기네
내 마음에 싱그러운 향기 넘치네

진달래꽃

(한국) 이시환

긴긴 겨울을 나고서야 너는 더욱 붉어라
그늘진 산비탈 어디런들 서지 못하랴
오로지 봄을 기다리는 저 간절함으로
우리 메마른 가슴에 먼저 피어나는 소망 진달래여
뒤돌아보면 내 옷소매를 잡아끄는 너의 미소
연분홍빛 환희의 눈물이어라

매서운 눈보라 몰아칠수록 너는 더욱 뜨거워라
풍 - 진 세상 어디런들 함께 가지 못하랴
한사코 봄을 기다리는 반도 땅의 숨결로
우리 마음밭에 불길처럼 피어나는 사랑 진달래여
뒤돌아보면 내 밭길 붙잡는 너의 눈물
기쁨의 수줍은 미소이어라

★유난히 길고 긴, 추운 겨울
(시련, 고통)속에서도 봄(소망,
새 세상)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처럼 인고의 세월을 이겨
내고, 비로소 화사하게 피어나
사람들의 눈길과 밭길을 묶어두
는 진달래꽃(한민족)의 생명력
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었다.

2005년 9월 10일 03:30

서울에서

새 노래

화룡 팔진 가

김태현 작사
김동하 작곡

에루화중네(중지) 데루화중네(중아) 남평진에가면 (남평진에가면)
 데루화중아 지화자중네 송선진에가면 (송성진에가면)
 지화자중아 어얼싸중네 북동진에가면 (북동진에가면)
 어얼싸중아 중구나중네 동성진에가면 (동성진에가면)
 어루화동동 데루화동동 두도진에가면 (두도진에가면)
 데루화동동 지화자동동 서성진에가면 (서성진에가면)
 지화자동동 어얼싸동동 팔가자진에가면 (팔가자진에가면)
 에헤라동 데헤라동 룡성진에가면 (룡성진에가면)

두만강(얼싸) 유람길에(중지) 배를 띄워놓고(배를 띄워놓고)
 군합산에 올라서서 두망강을굽어보며(두망강을굽어보며)
 북동네 표를 안고 북을 누리며(북을 누리며)
 평강표록색입고 기쁨가득신고(기쁨가득신고)
 백년화룡술의고향 소문이높아(소문이높아)
 어랑촌향일유격 전설도많네(전설도많네)
 해란강아치다리 관문지키면서(관문지키면서)
 청산리 문화유적 자랑도많아(자랑도많아)

변강산천 꽃피우며 선경노래블러가세
 백두전설 선남선녀 대를이어전해가세
 석탄산울 자랑하며 지상락원건설하세
 세계각지 진출하며 내고향울자랑하세
 명태산업 꽃피가며 술문화자랑하세
 전국명표 콩크리트 공업기지건설하세
 굽이치는 의골강물 바다에로수송하세
 영웅이름 높이불러 이강산을빛내가세

에헤 노래 하세 화룡이여
 하늘아래 첫동네라 옛말도 많네 D.C.
 옛말도 많네 (중다)

새 노래

진달래 산을 태우는데

(남성독창과 방창)

리근영 작사

임룡길 작곡

진 달 래 산 을 태 우 는 데 태 우 는 데 태 우 는 데
 진 달 래 산 을 태 우 는 데 태 우 는 데 태 우 는 데

놀 란 호 랑 이 웬 불 이 나 고 웬 불 이 나 고
 잠 깬 종 달 새 웬 불 이 나 고 웬 불 이 나 고

따 움 따 움 따 움 따 움 따 움 따 움 호 통 치 는 소 리 따 움
 땃 쫂 땃 쫂 땃 쫂 땃 쫂 땃 쫂 땃 쫂 목 칭 뵈 는 소 리 땃 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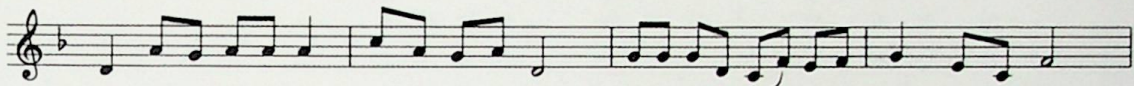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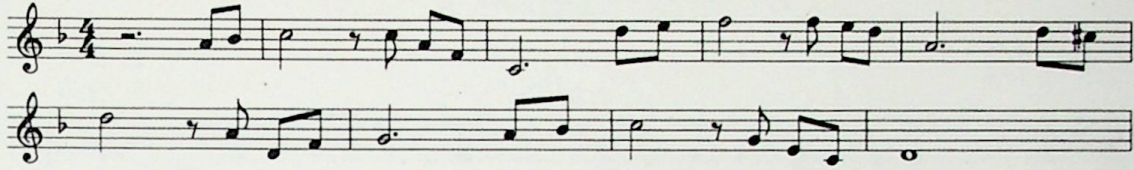
하 하 불 하 하 하 하 하 불 하 하 하 젊 어 진 다 는 하 하
 하 하 불 하 하 하 하 하 불 하 하 하 비 약 한 다 는 하 하

젊 어 진 다 는 산 의 웨 칩 웨 칩 웨 칩
 비 약 한 다 는 산 의 웨 칩 웨 칩 웨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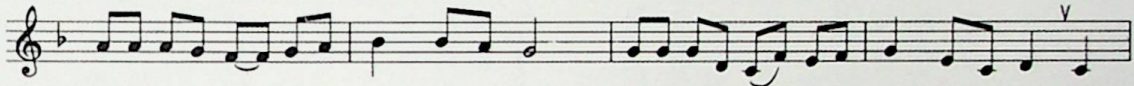
coda
 웨 칩 하 하

할 미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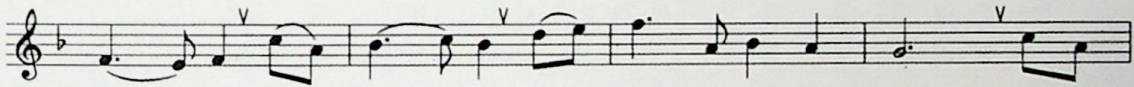
전민숙 작사
장영남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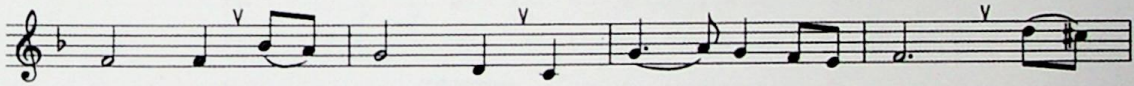
산 간의 찬서리 녹기도 전에 붉은소망꿈 꾸며 움터났소
겨울잠깨지 못한 동산기슭에 할미꽃꿈을안고 망울터쳤소



어지러운 발길에 멍이들어 보라빛몸휘여진 허리였소 할
남물치마 흰털외투 단장하고 노을속에 빨간웃음꽃이피었소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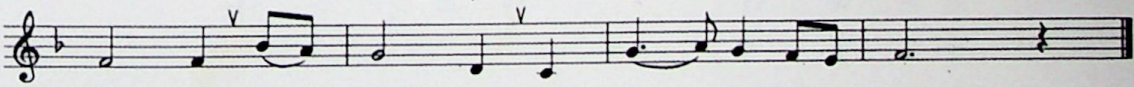
미꽃할미꽃순박한할머니일에
미꽃할미꽃시골집할머니채색



지친할머니가시손갈았소아
머리단장하고봄마중간다오아



아아아순박한할머니일에
아아아시골집할머니채색



지친할머니가시손갈았소
머리단장하고봄마중간다오

진정 느낀 사랑

전민숙 작사
리천우 작곡

하늘에서 날아 에는 비둘기보 아 도
 하늘에서 떠 도는 흰구름보 아 도

철창속에서 이 몸은 자유가부 러 위
 철창속에서 이 몸은 배움터그 리 위

눈물에 마음 깨끗이 씻고 어머니 품에갈 래 요
 비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선생님 품에갈 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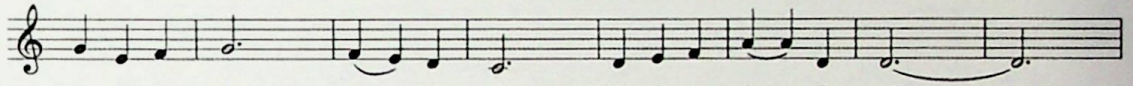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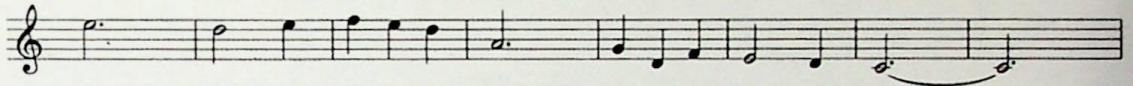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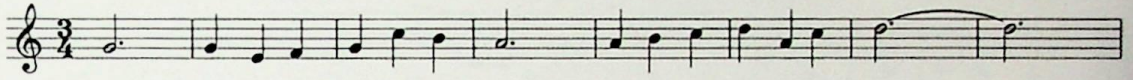
눈 감으면 어머니 품에 안겨 있 습 니 다
 선생님 사랑 이 제야진 정 느 끼 었 습 니 다

아 그리워라 보고 싶어 라
 아 그리워라 보고 싶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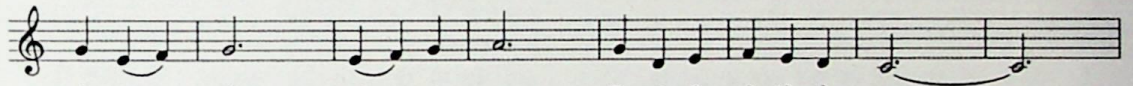
coda
 나의 어머니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선경대 새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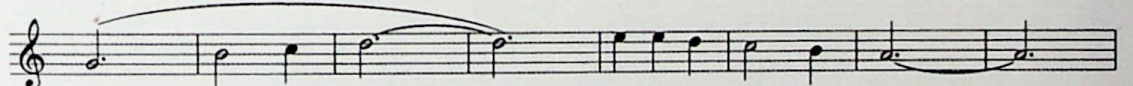
양룡철 작사
김일봉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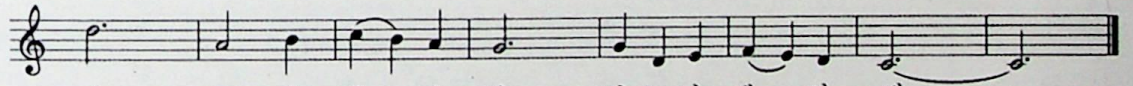
산에 산에 피 었 네 곱게도 피 었 네
연분 홍 저 고 리 새 파란 치 마 자 락



감로 천 마 시 고 폭포에 미역 감 고
골바 람 마 시 고 몸매도 어 여 뼈 라



(후렴)아 선경대 진 달 래



너 는 야 세 아 씨 너 는 야 세 아 씨

별처럼 빛나거라

절절한 감정으로

박규철 작사
류재춘 작곡

잘 가 거 라 아 이 들 아 우리사 랑 보 배 들 아
 잘 가 거 라 아 이 들 아 우리사 랑 보 배 들 아
 졸 업 시 켜 보 내 는 맘 갈라지 기 아 쉽 구 나
 졸 업 시 켜 보 내 는 맘 갈라지 기 아 쉽 구 나
 회 망 찬 래 일 위 हे 눈물참 아 라 배 움 의 종 소 리 는 메 아 리 처 부 른 다
 회 망 찬 래 일 위 हे 웃 음 지 어 라 지 식 의 하 늘 가 에 별 이 되 어 빛 날 때
 푸 른 꿈 안 고 서 자 유 로 이 날 아 가 라
 교 원 된 우 리 들 은 기쁨 님 처 춤 추 리 라
 (후렴) 잘 가 거 라 아 이 들 아 우리사 랑 보 배 들 아
 자 유 로 이 날 아 가 라 별 처 럼 빛 나 거 라

화 룡 찬 가

좀 천천히

김태현 작사
김정섭 작곡

해란 강 실버들 에 못 새 들 날 아 예 고 선 경
 해란 강 백사장 에 백 학 이 춤 을 추 고 평 강
 대 푸 른 숲 에 아 침 해 비 끼 었 네 유 유
 벌 넓 은 벌 에 황 금 물 결 설 레 이 네 춤 추
 히 굽 이 치 는 해란 강 푸 른 물 은 나 래
 며 노 래 하 며 흘 러 가 는 해란 강 은 화 룡
 편 비 룡 의 그 모 습 비 껴 담 고
 의 꽃 피 는 세 생 활 담 아 신 고
 화 룡 교 아 치 다 리 굽 어 보 면 서
 삼 자 매 백 두 설 령 전 해 가 면 서
 아 름 다 운 평 강 벌 을 감 돌 아 흐 르 네 (후렴) 아
 유 서 깊 은 평 강 벌 을 감 돌 아 흐 르 네
 아 해란 강 우 리 네 빛 나 는 력 사
 굽 이 굽 이 천 만 굽 이 세 계 에 로 흘 러 라

늪 으 막 사 랑

(혼성 대창)

손창렬 작사

김동하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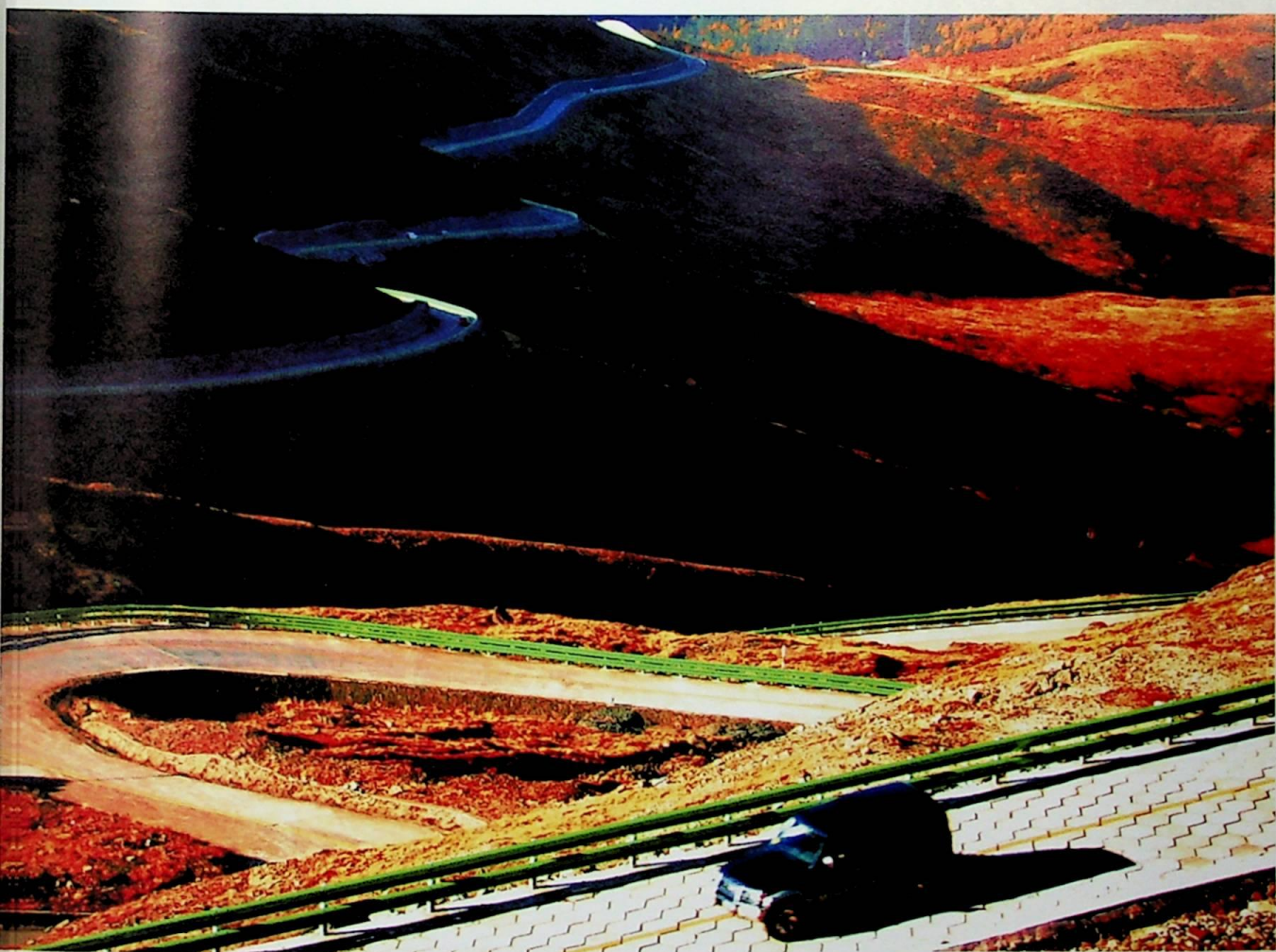
령 감은부엌 이요 로 친 은 온돌이라 부 엷이뜨거 워야 온 돌이 뜨 겁 지
 령 감은곶돌 이요 로 친 은 토장이라 곶 돌이 잘 끓 어야 토장국 이 맛 있 지
 령 감은술잔 들고 로 친 은 술병들고 저 가락 채를 집고 손 가 락 국을 뜨 며
 늪 으 막 사 랑 을 뜨 끈 한 온돌에서 델 델 델 구 으 면서 재 밋 게 삼 시 다
 늪 으 막 사 랑 을 구 수 한 밥상에서 불 불 불 끓 이 면서 따 끈 히 삼 시 다
 늪 으 막 사 랑 을 뜨 끈 한 밥상에서 서로서로 권 하 면서 따 끈 히 삼 시 다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읊 지 그 래 읊 지 읊 지 그 래
 령 감 은 부엌이오 로 친 은 온돌이라 따 끈 하게 살 아 보 세
 령 감 은 곶돌이오 로 친 은 토장이라 보 글 보 글 살 아 보 세
 령 감 은 술잔이오 로 친 은 술병이라
 따 끈 하게 들 어 보 세 따 끈 하게 들 어 보 세

특별기획



촬영작품

全市第二届“检察杯”书法摄影作品



山路弯弯 金鹤哲 摄影





天池仙境 刘载学 摄影



预防为主 崔 昕 摄影



花甲 朴哲源 摄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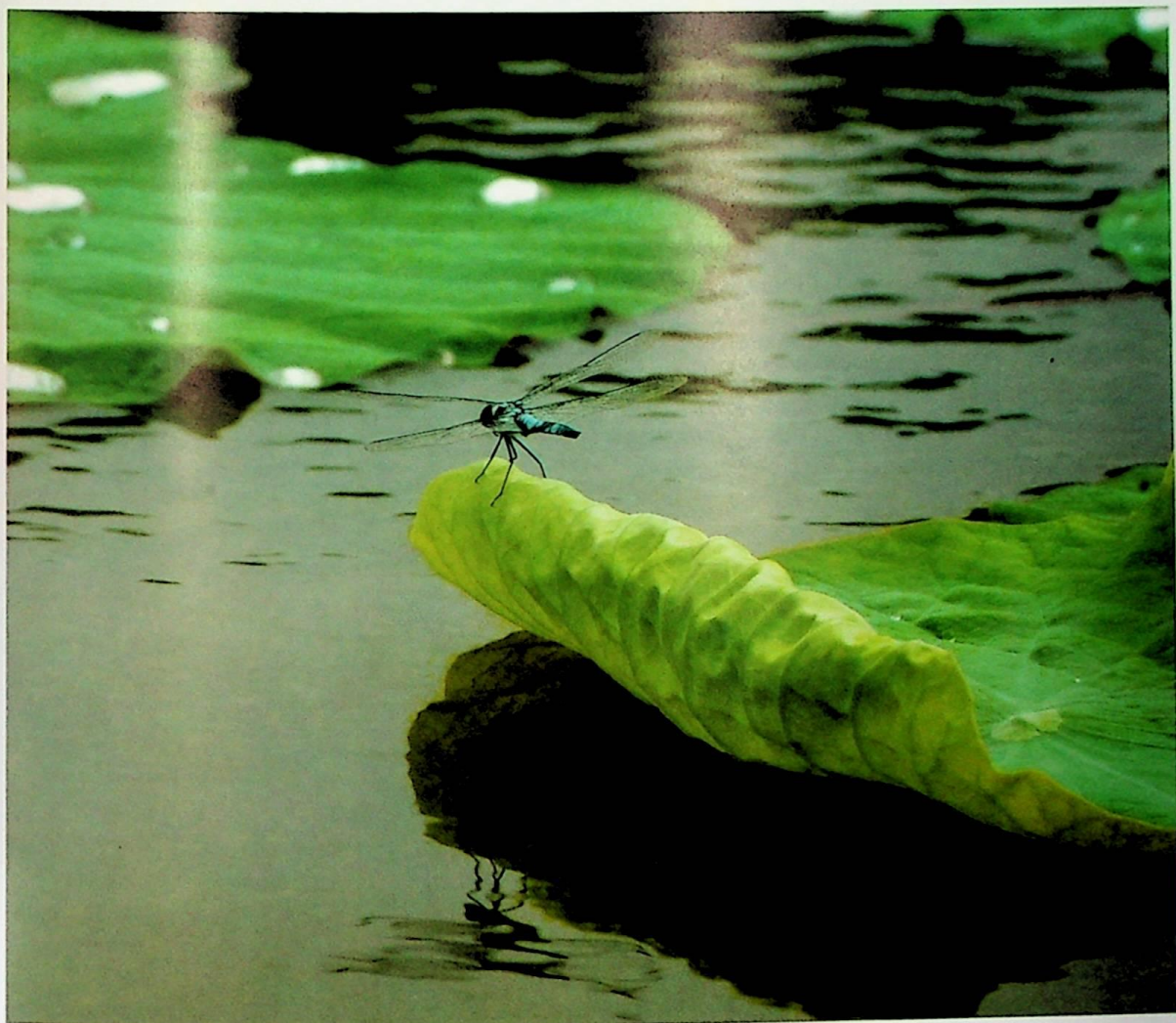
长白奇峰 李冬摄影



秋色 龙晓安摄影



晚霞 裴松雪 摄影



静 李 夏 摄影

특별기획



秋 金鹤哲 摄影



消防官兵 裴松雪 摄影

검찰관의 새로운 형상
 정치권 정 업무 정 통
 작 용 우 량 집 법 공 정

윤상철 서



尹相哲

朝鲜族，1956年5月14日出生于吉林省和龙市、高中文化。现任和龙市朝鲜族书法家协会主席、延边朝鲜族书法家协会副主席、延边伸出友爱慈善协会副会长。

1998年建立和龙市朝鲜族书法家协会成立创始人，当年担任副主席兼秘书长，首届国家书法考核七级书法家。二十多年来献出国内外作品100余幅展出，出版。

人民檢察官高學子正義劍琴和

护航曲波揚揚清廉 二〇〇五年十月 候振清

劍 膽 琴 心



候振清

汉族、1954年7月15日出生于吉林省图们市、大学学历。现任延边泰达公司工会主席，兼和龙宾馆总经理。市、州书协会会员。作品曾入选中、韩书画作品集，延边一一顺书法作品集，多次入选州书展。

維護法律尊嚴
 創建和諧社會

乙酉年仲冬
 趙學彬書



趙學彬

汉族、1972年10月10日出生于山东省肥城市、大专文化。现就职吉林省和龙市林业有限公司宣传部。延边州书法家协会会员，和龙市书法家协会会员，自幼酷爱书法，在部队服役时曾得到过解放军书法家张瑞老师的亲自指点，擅长：楷书、行书、隶书。作品多次在部队及吉林省延边州和龙市书法比赛中获奖。

집법의 구별화
를 높이기

을유년가 홍룡의



홍 룡

길림성예술학원 졸업
화룡시 조선족서예가협회 리사
화룡시 3중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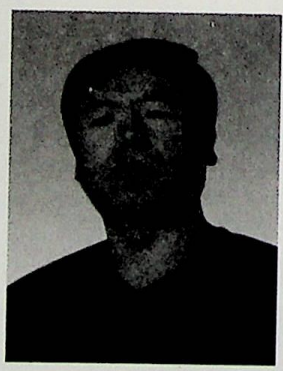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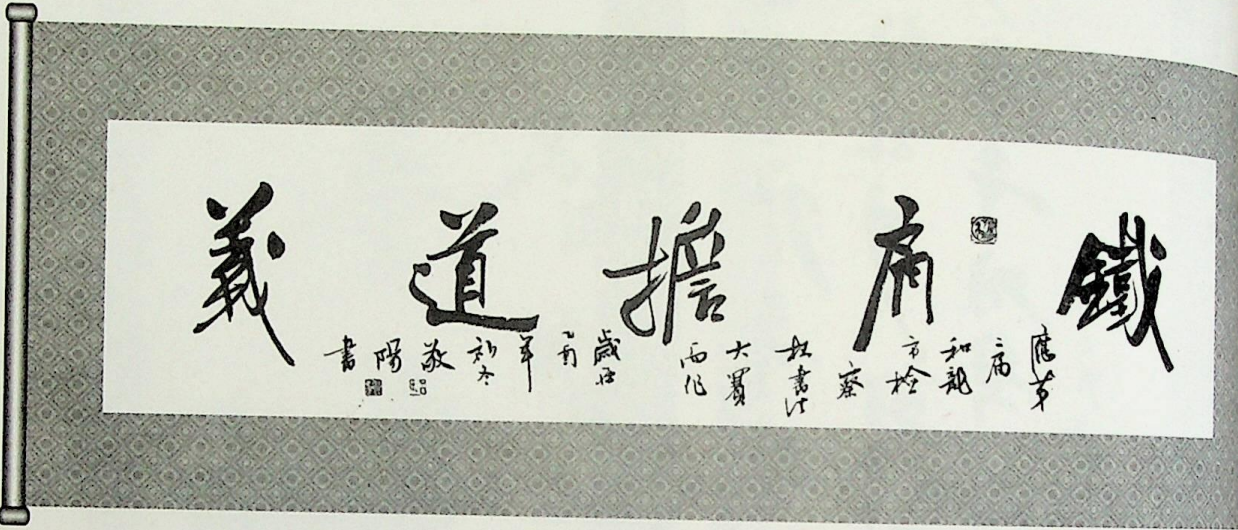
법을 감옥의 죄를 전면적으로
 의행하여 기업활동의 세로로
 국면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2001년 11월 15일
 리문호



리문호

연변조선족서예가협회 이사
 화룡시 조선족서예가협회 부주석 겸
 비서장
 동북3성조선족서예진 은상
 조선족서예림서전 은상
 길림성경필서예진 은상
 중.한서예교류전 다수



吕敬阳

汉族、1970年出生于黑龙江省祥泉县人，现为吉林省书法家协会会员、延边州书法家理事、和龙市书法家协会名誉理事。作品多次参加省、州、市举办的各类展览并获奖。

선물

리향자

저녁입니다.

고중에 다니는 딸애는 밤 자습하러 나가고 집에는 저혼자 책을 보고있습니다.

갑자기 - 따르릉! 조용한 밤정적을 깨뜨리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여보세요?

- 어, 당신이야? 잘 있었어? 애들두 잘있구.

- 네, 당신도 잘 있어요? 몹시 고생스럽지요?

- 고생은 뭐? 다 가정을 위한 일인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당신이 애들을 거느리고 더 고생하는거지 뭐?

항상 소탈한 남편입니다.

- 여보. 달력을 보니 당신 생일이 다가오더구만. 여태껏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주게 없어서 정말 미안했어. 그래서 이번엔 생일선물로 목걸이 하나 사서 부칠가 하는데 어때?

저는 흥분에 차분히 젖었습니다. 녀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장신구가 아닙니까. 하지만 전 또 저로서의 타산이 따로 있습니다.

- 여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전 목걸이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을 받고싶은데요.

- 뭔데?

- 전 글을 쓰고싶어요. 당신이 동의하면 문학원강습반에 다닐거예요. 당신이 주는 제일 큰 생일선물로 삼을게요.

- 뭐?! 문학원? 사십을 넘긴 녀자가? 그것도 시골녀인이 애들처럼 웬 공부타령이요?

- 여봐요. 사십이 넘었으면 어떻고 시골녀인이면 또 뭐래요. 저도 인젠 사회에 대해 알고싶고 보고듣고 느낀것을 글로 쓰고싶어요.

- 음, 그런가?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난 적극지지야. 아무튼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몇년전 사춘기에서 헤매고있는 아들과 철없는 딸애를 저한테 맡겨놓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부지런한 남편은 달마다 어김없이 돈을 부쳐왔고 저도 혼자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또 철없는 애들을 사람만드느라 무척이도 애를 썼습니다. 일이 아무리 고되고 애들 때문에 속을 많이 태우다가도 매번 남편한테서 걸려오는 전화에서 힘을 얻고 더 없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헌데 어느날부터인가 저는 남편의 말가운데서 그이가 점점 세련되어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듣고 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가슴치는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에 파묻혀 보는것, 듣는것이 없이 꾸벅꾸벅 일만하던 실농꾼이 인

젠 그 무슨 컴퓨터설계요. IMF 요, 위성발사요 하면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어찌나 잘 엮어내려가는지 저는 멍해 할말을 찾지 못합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가끔씩 신경부릴때도 있습니다. 공통언어가 없어서 말할땀 없다가요. 확실히 남편의 문화차원은 제고된것입니다. 저는 그저 남편한테서 전화가 올때면 《딸애의 글이 책에 실렸어요》, 《아들애가 철이 들었어요》, 《오늘 익힌 강냉이 팔아 백원 벌었어요》하는 입가진 사람이면 다 외울수 있는 말뿐입니다.

요즘 정신을 차리고보니 제가 세상과 너무나 떨어져사는 진짜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감이 듭니다. 남편과의 거리가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외국갔다 온 부부들이 잘 맞지않아 리혼률이 상상외로 높다는것이 다소 이해가 갑니다.

어느날 저녁, 착잡한 생각에 몸부림치던 저는 저도 몰래 문밖을 나섰습니다. 별하나 없는 밤은 숨쉬기도 가쁜것이 당금이라도 비가 내릴것같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발길이 닿는대로 걸었습니다. 갑자기 왁작 떠드는 소리에 그쪽을 바라보니 한패의 남녀들이 웃고 떠들면서 노래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술이 잘 된것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고 마작판에도 가볼까? 아니면 값비싼 옷이나 사입고 유람도 다니며 남은 인생 즐겨볼까. 세집에서 딸 시중하는외 온하루 할 일없는데... 이날 이때까지 저는 남편과 애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는것이 여자로서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체옷 한벌 못입어보고 놀이터 한번 못가보고 그저 묵묵히 날로 변해가는 세

상과 동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몇날며칠 희을 따져가며 지어준 이름 석자는 그저 아무개의 안해로, 아무개의 엄마로 대체된지도 오래돼서 제가 죽은 후 호구부에서 유감없이 지워버리면 되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현대 인젠 저도 제 이름 석자로 세상에 나서고 싶습니다. 아무개의 안해도, 아무개의 엄마도 아닌 망각속의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은 너무 허기져있는것입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가치가 있고 희망도 있으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겠는가? 저는 환한 가로등밑에서 거듭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면서 히스테리적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잠일할 때 입을 옷을 입고 끌신을 끌고 온것을 알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길을 찾고 있으니깐요. 멀지않아 저의 참된 모습을 당신들에게 보여드릴거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휩 불어왔습니다. 하늘에 하나 둘 별이 나타났습니다. 고개젓히고 별을 쳐다보는 순간 언젠가 딸애가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 어머니 문학원강습반에 다니면서 글쓰기를 배우세요. 어머니 직성에 맞을겁니다.

그땐 무심히 들었습니다. 농촌아낙네가 웬 글쓰기냐, 너희들 뒤바라지만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생각하니 딸애의 말이 천만지당하였습니다. 문학만이 저의 허기진 삶을 달랠

것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바로 문학이야. 갈라터진 이 손에 필을 잡고 내 인생에 아름다운 그라프를 그릴거야. 장차 남편이 돌아와도 옛날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머물러 서서 《여보, 나 당신없는 동안 애들을 저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당신만 기다리면서 고독하게 살았어요.》 하고 궁상을 떨면서 남편한테서 칭찬소리 한마디 얻어듣고 기분이 백프로되는 그런 바보가 되지않고 아름답게 가꾼 내 삶의 터전에서 《여봐요. 나 인젠 이렇게 멋지게 살아요!》 하고 땃땃이 맞을거야. 그래 지금부터 기나긴 세월속에 진행될 공정을 시작해야지. 망각속에 있는 내 삶을 가꾸는 위대하고 희망찬 공정을! 황차 큰 성과없다해도 아무런 구애도 받지않고 후회도 하지

않을것이야. 난 최선을 다 할테니깐!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지막 구름을 물고가던 바람이 저를 스쳐가면서 저의 머리속의 근심걱정을 모두 날려갔습니다. 후, 숨이 활 나옵니다. 하늘도 맑고 저의 머리도 맑아집니다. 무수한 별들이 저에게 찬란한 미소를 보내옵니다. 집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래동안 별러오던 속심말을 터쳐놓고 남편한테서 너무나 화사한 생일선물을 받는데 이 시각 저는 사춘기 소녀처럼 기분이 배시시 하늘나라 별들의 웃음을 따라 둥둥 떠갑니다.

- 그래 열심히 땀겨야! 암, 뛰고말고.



리향자

수필 《엄마와 여자 그리고 생명》등 수필 《언변녀성》등 잡지에 발표.

기다림의 향기

손혜숙

가을은 기다림의 계절인듯 싶다.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것을 보노라면 마음속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움이 기다림으로 이어진다. 돌아보면 내 인생의 짧지않은 끈에는 많고많은 바람과 기다림이 구슬처럼 꿰여져있는데 작고 보잘것없는것이였어도 나에게서는 한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이였다. 또한 그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내 인생도 여기까지 흘러왔다.

많고많은 아름다운 념원과 기대속에서 열달 기다려 본 첫 아이가 울음 한번 울지 못하고 요절하니 그 심정 무어라 형언할수 없었다. 그럭저럭 그 아픔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엄마는 나보다 더 아쉬워 하시면서 인차 두번째 아기를 가질거라 했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것처럼 묘연할줄이야.

한해가 지나고 두번째 해에 들어섰어도 조짐이 없으니 애를 갖고싶은 욕망이 불붙듯 했다. 원래 어린이들에 대해 많이 팽담했던 나였지만 지나가는 아기를 봐도 못견디게 안아보고 싶었고 젖먹이는 아기엄마의 젖가슴을 봐도 부러워 죽을 지경이였다. 어떤때에는 어디에 가서 아기를 안아오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욕망이 너무 강렬했던 탓이였

던지 세번이나 가짜 임신현상까지 나타났었다. 몇달씩 달마다 오던 위생주기가 안 오면 임신 아니냐 하고 기뻐했지만 그 환영받지 못하는것이 나타나 크게 실망시켰고 속상하기도 했었다.

엄마가 되고싶은것은 아마 모든 녀성들의 본능이고 갈망이리라. 기다림은 그렇게 못견디게 사무쳐 왔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애도 많이 썼다. 그렇게 기다리던끝에 엄마가 되던 날 이 세상이 나 혼자의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오누이의 엄마가 되였다. 그 애들을 키우며 많은 기다림이 있었다.

언제 웃으려나, 언제 기여다닐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중, 대학...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성실하고 신용있는 사람으로 커가게 하는것이리라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애들을 옳바르게 인도하기에 류의했다. 부모의 본보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겨져 애들 앞에서는 될수록 좋은 면만 보이려 애썼으며 애들의 자그마한 결점도 묵과하지 않고 고치게 했다.

특히 애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면서 애들의 유치한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었고 애들의 자신심과 지구력을 키워주기에 힘썼다.

애들의 책임심을 키워주기 위해 아깝지만 어릴때부터 김치움과거나 물김기 같은 힘에 겨운 일을 시켰는데 그 보람으로 그랬는지 아들은 기숙사생활 때 일할줄아는 데는 자기가 제일 괜찮다고 했다. 기숙사를 옮길 때 다른 애들은 자기집도 꾸릴줄 몰라 아들이 대신 다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딸애도 여자로서 해야 하는 일과 부엌일을 곧잘 하였는데 작식은 아주 제법이다. 애들 학교다니 때에는 성적이 발표되기를 무척이나 기다렸고 또한 애들 품행이 어떤가 학교에서 말썸이나 부리지 않는지 하여튼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다. 우수한 성적표나 우수학생증서를 받아오면 기쁘고 힘났지만 애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되면 남의 애들처럼 곱게도 못 키우면서 왜 이 세상에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나 하면서 마음도 아파했다. 아픔도 많았고 잔소리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빨리 자라기를 기대했다. 그러한 기다림속에서 애들은 선생님들과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의젓하게 자라나 사회에 나갈수 있게 되었다.

기다리던것이 오면 또 다른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내 인생이 흘러왔는데 기다림속에서 꼭 인생수업이 끝날것같다. 사람의 욕망이 끝없는한 기다림도 끝이 없을것이다. 지

금도 기다리는것이 자꾸 생겨난다. 어떤 때에는 모든것을 운명에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살려해도 안되는것이 내 현실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다림이 없다면 산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겨진다. 기다림은 아름다운 고민이며 향수이다. 나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모든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것이다. 마음졸이며 기다리다가 받아안으면 그 이상 감동이 없다. 천하를 받은 기분이다. 물론 기대했던것이 다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 욕심이 지나쳤구나. 노력한 과정만이라도 보귀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았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는가운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살펴보게 되었고 마음도 한걸음 한걸음 성숙으로 나간것같다. 현실에 맞다싶어 노력해서 될수있는것이면 기다리고 허황한 꿈같은 바람은 스스로 지워버렸다. 마음도 많이 비워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 마음은 어느때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진것같다. 그리하여 따뜻한 눈길로 내 주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용서할줄도 알게 되었다.

이 가을도 이런 저런 많은 기다림이 있다. 하여튼 기다림이 있어 속상하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다.

기다림 내 인생의 동반자. ♥



손혜숙

수기 《하늘에 부치는 편지》등 수편 발표.

내 삶의 그래프

서창현

- 과부는 혼자라도 능히 살아갈수 있지 만 홀아비는 혼자서 살기 어렵다는 말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여 왔었는데 홀아비생활 10년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 말의 진정한 함의를 터득한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장판을 닦고 빨래하고 시장을 보고... 사내가 아닌 《사내》가 바로 홀아비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나로서 살아온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특급보호동물인 참대곰처럼 살아왔었다. 어릴때는 부모의 보살핌속에, 장가를 들어서는 안해의 보살핌속에, 실로 나는 내 삶을 산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속에 얹혀 산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누구에게 의탁할수도 없고 나절로 영위해가는 나만의 홀아비생활, 울며 겨자먹기지만 그래도 내 삶의 신성한 그래프다.

그래도 한두해는 집도 깨끗이 거두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고 때시격도 제때에 꿰어먹고 다녔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런 생활이 지겨워났다. 생활은 점차 절도가 없어졌고 사람은 점점 라태해지기 시작했다. 낮에도 퍼놓은 대로 침대우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부자리, 출근시간이 늦어서 미처 씻지 못한채 쌓여놓은 식기들, 어지러운 옷가지들도 대야물에 불귀둔지가 며칠째 된다. 정말 어수선한 느낌만 드는 홀아비의 《보금자리》이다. 여느 아낙네의 집이 이렇다면 언녕 말밥에 올랐겠지만 다행히 나는 홀아비여서 탓하는 사람이 없다. 안해가 있을 때 음식이 구미가 동하지 않으면 투정질도 해보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절로 해먹는 음식인것만큼 시고 짜고 싱거워도 누구하고 투정할 사람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라 목구멍으로 넘겨야 하니 목구멍인들 어찌 불만

이 없겠는가?

제일 민망스러울때는 친구가 왔을때이다. 술안주를 갖출 일이 걱정되어 음식점으로 가자하니 친구들은 음식점에서 먹기보다 따뜻한 집안에서 먹는것이 경제적이고 재미있다고 한다. 별수없이 온갖 재주를 다 부러지지고 볶고 무치고하여 차려놓으면 친구들은 내 료리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잘도 먹어준다. 이러한 그들의 일이 고맙긴 해도 이후엔 오지말았으면 하는것이 내 소원이다. 그도 그럴것이 친구들이 가고나면 지저분하게 널린 술상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았으니 말이다.

이런 생활은 그래도 참을수 있지만 제일 참기어려운것은 고독이다. 학교에서 매번 저녁자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문손잡이를 잡을때면 근심부터 앞선다. 이 밤을 또 어떻게 지새야 하는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새는 밤은 왜 그리도 길가? 썰렁한 집안에서 혼자 묵묵히 텔레비만 보는것도 인젠 싫증이 난다. 나 혼자만의 세계인 이 집이 싫다. 말소리가 있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사람이 많은곳이 그림다. 그래서 찾은곳이 음식점이었다. 음식점의 단골손님으로 된 나는 맥주를 마시던데로부터 배갈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배갈이 석양이면 족하던데로부터 《고량주》 한병을 굶내는것은 식은죽먹기였다. 이렇게 마셔야 그날밤은 신고를 겪지 않고도 달게 잘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집으로 한 장님이 찾아왔었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많이 보살펴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식이 나 알아보려고 찾아온것이였다. 아버지가 세상 뜬지 오래된다고 하자 장님은 길게 탄식하면서 그때 (3년제해시기) 아버지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언녕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거라면서 일찍 찾아오지 못한것을 몹시 후회하는것이였다. 지금 장님의 안해는 신수리방을 차려놓고 일하고있고 아들과 며느리는 장의관에서 일하고있는데 수입이 짹짹하단다. 그와의 이야기에서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의 리치와 삶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는 앞 못보는 장님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몸을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해하며 남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보지못한 깊은곳을 보게해준 이 세상 모든것들에 감사해 하며 살고있었다. 그에게는 낮이 없다. 그가 향수하는것은 밤이다. 밤을 향수할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둠은 소중한것이다. 그를 대하고보니 어쩐지 자신이 왜소해짐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언젠가 나의 동사자가 나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 한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놀고싶은 마음이거나 허황한 생각을 쫓아버리게 되므로 부질없는 번뇌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그렇다. 한가지 일에 집념하자. 그러면 고독의 공간은 좁아질것이며 미구에 고독은 소실될것이다. 장님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고생속에서 즐거움을 찾노라면 고독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무산계급작가인 고리키는 이렇게 말했다.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분석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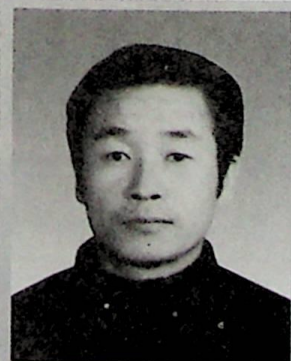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리고 고독하지도 않다. 고독하다는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마음에 달린것이지 객관적인것은 아니다.

이때로부터 나는 이 세상 모든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기위해 의식적으로 애썼다. 빨래를 하면서도 나와 같은 할아버지가 많다고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다. 그것도 그럴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나이들이 할아버지생활을 하고있는가? 그래도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삶의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는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하겠다.

이리하여 나는 꽃도 가꾸고 채마밭도 가꾸고 산나물도 뜯어오고 산에 가서 샘물도 길어온다. 이러니 정신도 나고 밥도 잘 당기운다.

자랑은 아니지만 난 지금 어지간한 너자는 찜찌먹을 정도로 갖가지 요리를 할줄 안다. 요리책을 펼쳐놓고 하던데로부터 이젠 요리책을 보지 않고도 무침이요, 볶음이요, 전이요, 회요, 자반이요, 줄임이요, 찌개요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모두 낮에 하는 일로서 고독과는 별관계가 없다. 고독은 언제나 밤에 엄습한다. 밤을 정복하는것이 곧 고독을 전승하는것이다. 하기에 밤은 나에게 있어서 습작의 밤이였고 탐구의 밤이였다. 그러니 고독을 느낄 여유가 없다.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노라면 마음도 한결 개운해진다.

이미 말한바 있지만 여태껏 나는 나로서 살아온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살핌속에서 내 삶을 영위해 왔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고독과 싸우면서 내 삶의 그래프를 올곧게 그려왔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아끼고 정성을 다하면서 눈부신 색채를 부여하고싶은 마음이였다. ♥



서창현

화룡시고급중학교 교원.

수필 《조선글 -- 할아버지》가 제 1차 전국조선어문교원 (정음상) 글짓기경연 2등상 수상. 그외 수필발표.

입과 붓

리근영



- 작가는 붓으로 말하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런 글을 가끔씩 읽어왔다. 그리고 내 입으로도 그와 유사한 말을 하기도 했다. 확실히 옳은 말인것같다. 입은 듣는 사람의 귀와 얼굴의 제한을 받지만 붓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아무런 구속도 없이 말을 쓰니말이다. 그래서 말은 진짜일수도 있고 가짜일수도 있지만 붓은 그렇지 않다. 붓은 입과 달리 직접보거나 듣는 상대없이 충분한 사유와 사색을 거쳐 표달된 속심의 말이다. 하지만 입은 언제나 듣는 사람과 직관되어있기에 때론 속심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입으로 한 말을 믿지 않고 붓으로 쓴 글을 믿는다. 그러므로 《작가의 입은 붓이지 밥먹는 입이 아니다》 고 했을것이다. 그렇다! 붓은 작가의 입으로 되기에는 손색없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입은 표층을 구사하고 붓은 심층을 구사한다는 말은 그저 일리만 있는말이 아니라 중량감이 있는 등지속에 알같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장편소설을 쓰지

만 붓으로는 작문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 더 생동하게 말해서 《입은 대학생인데 붓은 소학생도 되지 못한다》 즉 입은 거침없는데 붓은 굼벵이다. 이래가지고야 어찌 글 쓰는 재간을 늘구며 또 좋은 글을 많이 쓸수 있겠는가? 붓이 설사이 없이 일어서서 달리기를 해야 글 쓰는 재간도 늘고 좋은 글이 부절히 나올수 있을것이다. 입이 부지런하고 붓이 게으른 사람은 글 쓰기를 그만두고 정치거나 선전사업을 해야하고 반대로 붓이 부지런하고 입이 게으르거나 무거운 사람은 정치를 그만두고 글 쓰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입과 붓사이에는 동점선이 없다. 그들은 등돌리기같은 관계속에서 입은 높이를 취하려하고 붓은 깊이를 얻으려 한다. 그들의 무게에는 =표가 붙지 않는다.

나는 일찍 문단에 데뷔하기전 즉 1956년과 57년도, 이 두해사이 당시 우리 연변의 유일한 문학지였던 《연변문예》에 백번도 넘어되게 해야될수 없이 많은 차수로 작품을 투고하여서야 겨우 한편의 시를 발표하고 문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때로부

터 나는 정신없이 누가 뭐라하든 상관없이 (관계하지 않고) 줄곧 죽기내기로 글을 써왔다. 그렇게 쓴 글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편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450여편이 발표되고 겨우 한권의 시집을 묶었을뿐이다. 반작이도 안되는 글 농사였다. 이런 실정으로 보면 나는 확실히 우둔한 사람이지만 총명한 사람은 못되었다. 물론 우리 문단에는 총명하고 재질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중에는 흑간 우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우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누구의 지도도 없이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였으니 말이다. 우둔한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건 부지런한 덕분일 것이다.

한국의 저명한 대하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자기 두번째 대하소설 《한강》(3부작) 집필(창작)에 들어갈 때 신문매체에다 《나는 오늘 감옥(창작실)으로 들어갑니다》하고 선포하였다. 붓과 씨름하겠다는 말이 된다. 그때 그 글이 우리 《연변일보》에도 실렸었다. 필경 조선생의 붓은 조선생에 의해 단단히 옥고를 치렀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자각적인 희생정신을 따라배워 붓을

쉬우지 말고 부지런히 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부 문인들은 살아온 동안 한끝 붓을 날린 것이 압술한 책 한권 정도밖에 안되면서 탕탕 큰소리를 치면서 붓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작가의 본령을 지니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작가에게 있어서 혀끝이 게으르는 건 별문제지만 붓끝이 게으르면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속담에 《짓는 개는 물지 않고 짓지 않는 개는 문다》고 했다. 입이 조용하고 붓이 부지런하면 많은 글을 써낸 훌륭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붓이 부지런하면 세상이 알아봐준다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훌륭한 글은 당분간 발표 못되어도 어느쎈가는 꼭 발표될 수 있으니 말이다. 발표도 중요하지만 쓰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써야 발표를 논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순서이다.

그리고 명심하자. 입은 침묵을 허문자리에다 오래가지 못하는 기억을 남기지만 붓은 침묵을 허문자리에다 영원히 말하는 자기 입을 둔다는 것을. ♥

2005년 10월 11일

진달래찬가

허영순

여섯살되던 해 어느 봄날, 나는 맏형님을 따라 소수레를 타고 내가로 갔다가 처음 지척에서 고향의 산과 내물을 지켜보았다. 민수름하게 생긴 야산(룡두산)기슭을 훑으며 즐랑줄랑 흐르는 맑은 내물(복동하)도 흥미거리였거니와 보다 나의 눈길을 움짱 못하게 잡아둔것은 살바람이 한기를 몰아왔어도 산면의 군데군데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피어난 연분홍일색의 꽃이었다.

나는 그만 저도 모르게 《와아!》하고 흥분에 들뜬 탄성을 질렀다.

《형님, 저 꽃을 봐! 야- 굽다! 저 꽃을 날 줘!》

《응!》

형님은 빙그레 웃으며 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소수레를 몰고 내물을 건너 산기슭에 이르더니 날파람스레 산비탈을 기여올라 꽃가지 몇대를 꺾어가지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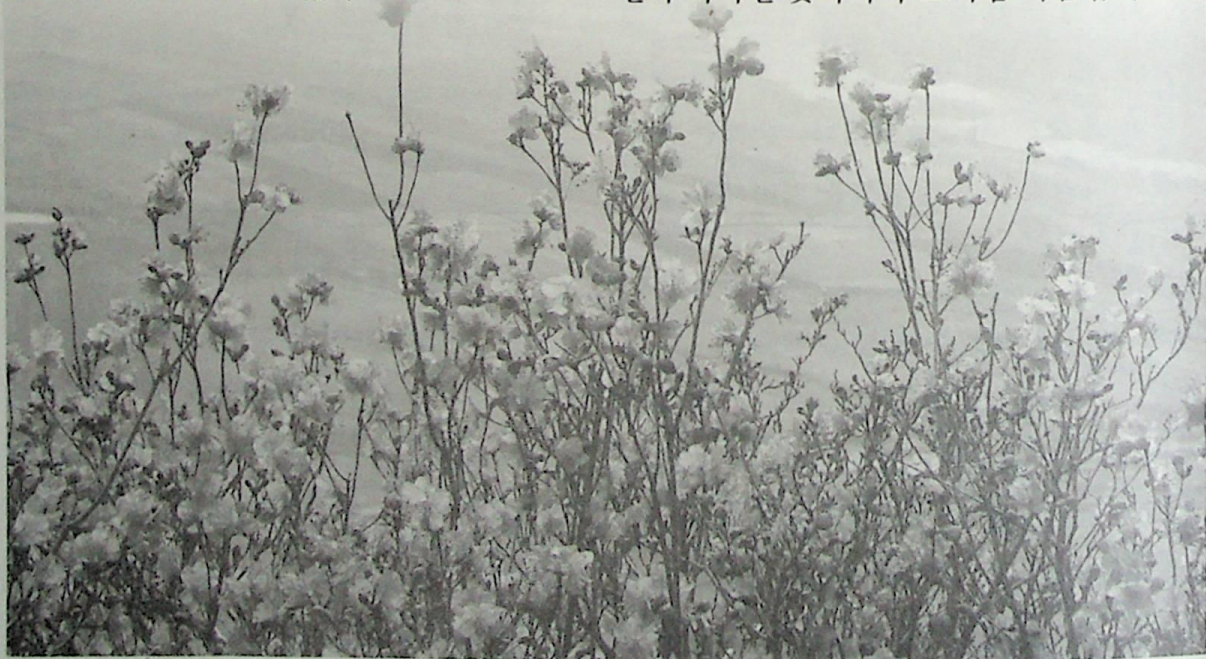
《천지꽃(진달래의 지방사투리)을 처음 봤니?》

《천지꽃?》

《응, 해마다 봄이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란다.》

《와아! 제일 먼저 피는 꽃, 제일굽구나!》

나는 너무나 좋아서 《천지꽃》을 높이 추켜들고 뽕뽕 뛰었다. 그때 《천지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던지 나는 그날 맏형님이 무슨일로 강가에 갔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으나 돌아올 때 《천지꽃》을 한줌 꺾어가지고 와서 물병에 꽂아놓고 보던 기쁨을 포함하여 온통 진달래에 정신이 팔렸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쩌면 애송이였던 나의 눈에도 앙상하고 꺼칠한 산야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없는, 철아니게 류달리 피어난 꽃이어서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



졌는지도 모른다.

하긴 내가 어른이 되면서 관상가치로는 외려 진달래보다 훨씬 우월한 함박꽃, 나리꽃, 모란꽃, 장미꽃 그밖에도 대도시의 화원들에서 보다 아름다운(이름모를)꽃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진달래처럼 그렇듯이 사랑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삼라만상이 겨울의 굳잠에서 겨우 깨어나 바야흐로 기지개를 켜고있을 때, 아니 식물계의 술한 생명들이 겨울추위에 주눅이 들어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을 때 애오라지 진달래만은 쌀쌀한 살바람과 맞서 봄의 앞장에서 겨울을 발악하는 잔설을 녹여내며 자체의 잎도 돋치기전에 성급히 아름다운 꽃을 싱싱하게 피워냈으니 원체 봄의 선구자로서의 그 자태가 매력적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사게되는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저명한 시인 하경지는 일찍 연변각지를 돌아보고나서 <山山 金達萊, 村村 烈士碑>(산마다 진달래요, 촌마다 련사비여라!)라는 명구(名句)를 남겼다고 한다.

시인은 산마다 피어난 진달래와 촌마다 세워놓은 련사비를 일맥상통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것 같다. 어찌면 화불처럼 피어난 진달래동산에서 촌마다에 세워놓은 련사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가슴속에서 불현듯 솟구쳐오르는 추모의 감정을 어쩔수가 없었던지도 모른다. 역시 우리 연변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뜻이기도 하다. 생각이 이렇게 미치자 나는 또 진달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자랑스럽게 느끼었다. 따라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진달래를 정중하게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화(州花)로 결

정한데 대한 중대한 의의를 보다 심각하게 느낄수가 있었다.

모두어 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 진달래는 천만가지 꽃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자랑스러운 꽃으로 나의 가슴속에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연변진달래》를 특별히 찬미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장백산 줄기마다 진붉은 진달래
혈전의 자유따라 어엿이 피였네
그옛날 선렬들의 피어린 넋이런가
송이송이 떨기떨기 충혼의 향기 넘치네
아, 진달래 연변진달래
송이송이 떨기떨기 충혼의 향기 넘치네

새우는 동산마다 연분홍 진달래
눈서리 녹여내고 예쁘게 피였네
찬란한 해살 떠인 백두의 정기런가
송이송이 떨기떨기 락원을 수놓아가네
아, 진달래 연변진달래
송이송이 떨기떨기 락원을 수놓아가네

2005년 10월 15일

성 (城) (외 1 편)

류연산

인공위성이 지구를 찍은 사진에서 볼수 있는 인간의 제조물은 중국의 만리장성과 애급의 금자탑이란대. 그러나 금자탑은 알고보면 무엇인지 알지만 모르고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 반면 웅위롭고 장엄한 만리장성은 첫눈에 중국인의 고대 창조물임을 대뜸 알아본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제일을 창조한 민족이다. 장성을 쌓은 민족, 우리는 5천년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하는 해석인가?

중화민족은 나라에는 만리장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짐승 한마리도 넘나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집집에서는 담장을 쌓고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누가 오면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낮선 사람이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사람마다 마음에는 도덕규범으로 정신적성을 쌓고 기타 다른 문화는 외면한다.

성은 안과 밖을 갈라놓는다. 성안에 사는 사람은 성밖을 경계하기마련이다. 언제나 밖에서 침입해올가봐 성문을 굳게 닫고 개미 하나 기여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리고 성안의 규범, 도덕, 풍속을 엄격히 준수한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성안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다.

그러나 성밖에 사는 사람들은 시야가 닿는곳까지 사유의 공간이 무한하다. 그들은 개척정신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받아들인다. 자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협적이다.

그러므로 결국 성은 늘 성밖의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기마련이다. 만리장성이 칭키스칸한테 무너지고 누르하치한테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그들 모두 다시 성안에 갇힘으로써 원과 청은 결국 또 멸망의 비운을 면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만리장성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담장은 수치의 상징이다. 동시에 낡은 도덕규범은 수채이다.

한국 성공회대학교 신영복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해방은 모든 벽의 해체입니다.》

계급사회의 본질

령도동지들과 술자리를 같이 할 때면 왕왕 화제는 어떤 급인가 하는 데로 돌아가곤 한다.

《나는 정현탄급이요. 당신은 참 아직까지도 영급밖에 안되었소?》

이렇게 말하면서 목에 힘을주는 사람의 말속의 말인즉 내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간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한수 아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높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보다 한급 높은 령도앞에서는 고양이앞에 놓인 쥐꼴이다.

《저는 정현탄급도 과합지요. 배려해주신 은덕은 백골난망입니다.》

계급사회의 본질은 권력의 노예이다. 그런데 산너머 또 산이라고 계급은 죽을 때까지 추구해도 끝이 없다는 현실앞에서 결국 계급사회는 무너진다. 국가주석이 정상인것이 아니다. 그 우에 또 유엔 비서장이 있다. 그럼 비서장이 최고인가? 그런것도 아니다. 비서장은 리사국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다. 현대사회에서 절대적인 정상이

란 있을수 없다.

현대사회는 법치의 평등민주사회이다. 수직사회가 아니라 수평사회인 것이다.

칭키스칸의 말을 빈다면 한마디다.

《제군들은 나를 칸이라 부르지 마라. 테무진이라고 이름을 부르라.》

소

원

화룡시신동소학교 4학년 1반 장혜영

재수없이 갑자기 며칠전부터 흔들거리던 앞이 한대가 아버지가 한국에서 3년간 일하시다 돌아온 그날부터 아파나기 시작했어요.

들쭉서나는듯한 이발의 진한 동통 때문에 가까스로 며칠을 참고참다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제격 실꾸러기를 찾아들고 뽑아버리자고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발뽑기가 무서워 감히 아버지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늦잠에서 깨고 보니 글썽 귀찮게 들볶으며 흔들리던 앞이가 절로 빠져서 입안에 있는거예요. 너무나 신기해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스레 말씀올렸더니

두분께서는 배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웃으시며 크게 실소를 터치겠지요.

저는 오래간만에 터치는 엄마, 아빠의 환한 웃음의 그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냥 덩달아 눈물까지 짙끔 짜낼정도로 한바탕 몸을 들썩이며 웃어제졌어요. 그렇게 한식경이나 자꾸만 절로 풀떡이는 배를 끌어안고 웃고나서야 저는 간신히 입안에서 터쳐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삼키며 아버지에게 빠진 이발을

지붕우에 던져달라고 청을 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웃고만 싶은것을 어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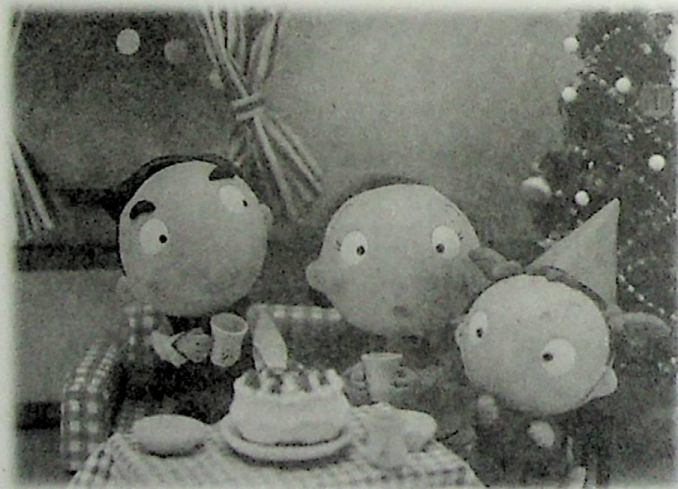
아버지도 이발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서며 «- 우리 혜영이가 아빠없는 3년동안 어느새 어른이 다 됐는가, 절로 이발까지 다 뽑고...» 하면서 시물시물 극구 웃음을 참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아침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일요일 이처럼 한집식구 셋이서 유쾌히 웃으며 나란히 아침을 맞이하니 그 기분이 야말로 상쾌하기가 이룰데 없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흔들리는 이발이 한대 더 있어요. 이 이발도 제가 잠잘 때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들리면서 동통이 심한 이발이

빠질 때 아프지도 않고 더욱이 깨여난 아침에 엄마, 아빠와 함께 한집식구 셋이서 오붓하게 즐겁게 웃을수가 있겠으니깐요.

남몰래 가져보는 흔들리는 이발이야말로 저의 작은 가슴이 애써 품어보는 파아란 《소원》이예요. ♥



가사화원의 짙은 서정의 불빛

- 김대현의 가사창작자세와 서정세계

남희풍

우리 민족의 가사문학은 광복후 60년 사이에 중국문화권내에서 유구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하여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이질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광복초기 리복당, 림원갑, 김우철, 홍성도, 김인준, 김례삼, 채택룡 등 문학선구자들에 의하여 발휘된 가사문학은 당대에 리르러 400여명 작사자 진영에 의해 만여수의 성인가사작품을 창출하여 가사문학의 독립적 지위를 정립하였다. 이 간거한 로정에서 연변가무단, 연변인민방송국,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연변문련이 선후로 창립되어 조선족문화발전의 진두에서 대중가요, 예술가요, 교향음악발전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가사창작에서도 괄목할만한 상응한 발전을 과시했다.

김대현선생은 민족문화의 거창한 흐름 속에서 특히 연변인민방송국의 총편집, 부총편집으로 사업하면서 한편 한편의 가사작품을 심혈하여 정품창출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1974년 가사문단에 데뷔하여 100여수의 알찬 가사작품을 펴내어 우리 민족의 가사화원의 한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1. 넓은 창작공간

김대현선생은 문학수양과 인격수양, 사상수양 등을 모두 깊이 쌓은 실속있는 문학가로 보인다. 그의 문집 《봄이 오는 들녘》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김대현의 창작공간은 우선 사회의 정(情), 리(理), 미(美)로 충만되어 있다. 직면한 사회현상은 그의 사회정치적 리상과 어울려 시대적 강음으로 되는 《칠월의 태양》, 《오성붉은기 중화의 기발이여》와 같은 무게있는 가사작품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따스한 그 빛발 사랑의 해살에/ 중화의 대지는 영원하 새봄이여라》, 《옷깃을 여미여 우리러 볼때면/ 높뛰는 이 가슴에 애국심 불탑니다》 정감섞인 설리적 사색으로 당과 조국에 대한 경건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정감, 설리는 개인승배거나 맹목적인 《송가》와는 달리 사회발전, 미래전망, 필연적추세와 융합된 리상, 생명의 진실한 고백이다.

사회에 대한 정, 리, 미는 동포, 고향에 대한 정감토로에서도 진지하게 안겨온다. 가사 《백의동포》, 《내 고향 연변》등에서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하얀 얼 하얀

마음 변함있으라》, 《인품 좋고 계절 밝아 정이드는 고향일세》라고 토설했는가 하면 백두산, 해란강, 사과배, 진달래, 만석별 등 자연경지를 읊조려 본질적 속성을 설리적으로 미감넘치게 표현했다. 이로써 주인공적 의식을 감회깊게 드러내고 민족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

김대현의 가사에는 로동생활을 제재로 한 작품이 매우 많다.

특히 《또 한배미 넘어간다》, 《우리 일터 언제나 봄》, 《풍년가을 성수나네》와 같은 농업로동을 쓴것이 적지 않다. 《한 포기만 베어도 손아귀가 차는구나》, 《방울방울 구슬땀이 백옥미로 맺혀있다》와 같은 감수는 진실하고 감미롭다. 로동으로 재부를 창조하고 로동으로 새 살림을 꽃피우는 무한한 희열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고향의 강아》, 《내 고향 진달래》, 《아, 백두산!》 등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산천이거나 청풍명월을 쓴 그의 작품도 역시 씩씩하고 진지하다. 《해란강 해란강 내 정든 강아 / 이 땅에 흘러흘러 몇천년 몇만년이더냐》(고향의 강아)에서이 자연의 정, 《함박눈 내린다고 겨울인가 마세요 / 정다운 일터 언제나 봄이래요》(우리의 일터 언제나 봄)에서의 자연의 리, 《봄 맞은 고향땅 하도나 좋아서 / 웃으며 피어나고 피어서 웃는구나》(내 고향 진달래)에서의 자연의 미, 그의 붓끝에서 그려진 자연정경은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사회, 인생과 밀착된 예술적공간으로서 경물을 빌어 서정을, 사물에 기탁하여 뜻을 표현한것이다.

인생에 대한 정, 리, 미는 김대현의 가사에서 고산구역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정, 동포의 리, 고향의 미, 그리고 련정, 친구정 등이 망라되고 있는데 련정 한가지만 보더라도 정면, 반면으로 다각적으로 쓰고있다. 인생

의 정감, 생명의 존재, 그 차원과 접근했을 때 새로운 정감이 반짝인다.

가사 《장미의 정》, 《그대를 위해서라면》은 정면으로 서정설리적으로 정면으로 련정을 토로했고 가사 《사랑의 불빛》, 《너자의 눈물》에서는 설리적으로 정면으로 련정을 썼으며 가사 《후회》, 《나는 바보야》 등에서는 반면으로부터 인생의 길에서 생기는 비리와 우여곡절, 그로인한 우려와 진통을 토로했는데 이것은 상심의 감각, 분노의 질곡인것이다.

김대현의 가사작품에서는 이밖에도 처녀없는 총각마을의 공허, 산골마을의 교원, 용군애민, 관광유치, 새 세기에 대한 송가 등 다양한 제재의 작품이 있다.

2. 서정화한 길은 감정세계

김대현은 사회와 자연, 인생의 심사숙고할 과제들을 형상화하면서 길은 서정세계를 펼치고있다.

우선 그의 가사작품은 용량과 강도가 높고 사상적 의의와 비교적 강한 정감적 력량을 과시하였다.

이를테면 가사 《마음》에서는 《진실한 마음에 순정이 있네 / 순정에 싹 트면 진정에 꽃피고 진정에 꽃피면 사랑도 꽃피네》(1절)라고 설리적으로 정감을 토로하였다. 1절에서 표현한것은 진실과 순정, 순결과 진정, 순정과 진정의 관련성을 말했는데 진정이 있어야 사랑이 있게 된다고, 2절에서는 성실에 대하여 설리적으로 정감을 토로하면서 정서, 선량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있다. 작자는 이처럼 심오한 사색으로 진정과 성실의 길은 이미지를 밀도가 있는 서정으로 토로하였다.

가사 《사랑의 불빛》에서는 《사랑은 불빛 타오르는 불빛... 언제나 내 가슴에 빨강

게 타오르며 / 꺼질줄 모르는 심장의 불빛》이라고 했다. 불빛이 없으면 세상은 캄캄칠 야일것이고 세상만물이 생존할수 없을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없을 것이다. 작자는 이처럼 불빛과 사랑을 대조시켜 비유하면서 사랑의 소중함을 피로하여 감정을 점차 승화시키면서 사랑의 이미지를 돋보이고있다. 작자는 심오한 사상함량을 개괄, 집중하여 함축시켜 점층적으로 설리적으로 표현하였다. 《웃는 얼굴》에서도 인감 심리를 진지하게 다루었다. 인간사회에서 남녀간에 오고가는 웃음은 련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짝사랑에 빠지거나 오해를 초래할수 있다. 하지만 웃음은 인간 관계를 화애롭게 한다. 이 가사에서는 이와 같은 웃음의 공리성, 인생미를 감미롭게 표현했다.

작자의 오묘한 사려깊은 착상은 사회와 인생의 존재적 가치를 파헤치여 인생의 자태를 헤아리거나 아름다운 개인자질과 인생풍모를 다각적으로 다층차 차원으로, 변화되는 시대와 련계시키면서 설리적으로 혹은 형상적으로 토로한데서 표현되고있다. 이런 창작사유는 작자의 철리적 사고에서 기인된것이다. 철리성은 시대와 생활이 제시하는 절실한 문제, 인민대중과 정치적 생활에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심오한 예술적 형상을 그려낸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실한 감정을 깊이 있게 반영한데 있다. 심오한 철리성은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의 중요한 속성이며 따라서 작품의 철리성을 보장하는것은 가사에서도 매우 적절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심오한 창작사유는 다른 한편 사회와 자연, 인생에 대한 감수를 감정화한 짙은 서정에서 표현된다.

가사는 시의 한 형태인 이상 정감을 생

명으로 한다. 가사는 도리로 사람을 설복시키는것이 아니라 정서를 통하여 사람을 감화시킨다. 하기에 가사는 감정이 가장 집중되고 가장 강렬해야 한다.

벨린스끼는 《시의 사상, 그것은... 약동하는 감정으로, 솟구치는 정열로 표현한다》고 했고 광말약도 《시의 근본적 과업은 서정표현에 있다》고 하였다. 가사도 본질적으로 감정의 산물로서 정서가 없는것은 가사라 할수 없다. 그런데 어려운것은 객관외계의 어떤 요소의 자극으로 하여 일어난 심리반영을 총화함에 있어서 자기 사상감정에 융화시켜 짙은 서정을 토로하는것이다.

김대현은 가사 《또 한배미 넘어가세》에서 이렇게 서정을 토로하였다. 《아침해 두둥실 동산에 걸어놓고 / 이양기 물고다니 신바람 절로 나네 // ... 앞벌도 들썩들썩 뒤벌도 들썩들썩 / 만석벌 그 어데나 더덩실 춤이로다》 짙은 서정을 안받침하여 모내기 현장을 생동하게 묘사서술하였다. 연후에 《오늘은 록파만경 래일은 금파만경》이라고 서정화한 짙은 감정세계를 토로하였다. 묘사의 서술은 수단이며 목적은 그를 빌어 서정을 토로하는것인데 이 가사의 매력, 그 기교는 서정화한 감정세계를 토로한데 있다. 이런 서정화한 짙은 감정세계는 어떻게 얻어진것인가? 작자는 1981년 봄날 화룡시 동성진에서 기계모내는 현장을 취재하러 갔다가 령감이 떠올라 이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 작자의 사색은 아주 깊었다. 농민들은 수천년 두손으로 모를 쫓았다. 손은 터서 소나무껍질로, 허리는 굽어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양기는 단숨에 록파만경을 이룩하고있다. 고된 로동에서 농민을 해방하는 혁명적 변혁앞에서 어찌 감정의 물결이 일지 않겠는가? 이런 감정화한 짙은 서정은 인민대중과 혈연적 관련을, 시대와 현실에 대한 민감성, 민족의

의지, 원망을 깊이 아로 새긴데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세계를 대함에 있어서 립장과 관점, 리상과 원망, 사상정조, 가치관 등을 자기의 사상감정에 융화시킨 것이다. 짙은 감정세계는 그의 허다한 작품에서 과시되고 있다. 《내 가슴에 여울치는 사랑의 강》(고향의 강아), 《노란 꽃 하얀 꽃 가지가지 남새꽃/ 송이송이 피었어요. 마음에도 피었어요》(우리네 일터 언제나 봄), 《백두산아 백두산아 유서 깊은 명산아/ 내 가슴에 솟아 있는 영원한 명산아》(아, 백두산), 《황금벌을 안아보자 황금산을 안아보자》(풍년가을 성수난다) 등에서도 본질적 특색을 포착하여 서정화한 짙은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가사는 짧고도 농축된 언어로 《완전한 세계》를 펼쳐야 하는데 그 오묘한 비결은 다름아니라 사물현상으로부터 받아안은 감정세계를 이성적으로 짙은 서정으로 잘 토로하는데 있다. 이것은 천근무게 되는 힘이며 필력이 꽃피게 되는 힘이다.

3. 다양한 구조배치

한수의 가사를 산생시킴에 있어서 평지에 루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어떤것은 벽돌하나 돌 하나를 쌓을 수도 있고 어떤것은 정체적으로 구조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것은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기제를 조립할 수도 있다.

김대현의 가사창작에서 보면 다양한 구조배치방식을 썼다.

가사 《사랑의 불빛》은 10행의 단절가사인데 상징적 의미를 띤 형상을 계기로 하여 심리적 측면으로 표달한 점층식구조배치방식을 쓰고 있다. 의념을 터친 이런 배치방식에서 웅위한 기백과 누에가 실을 토하는 듯한 면밀한 것이 결합되고 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지만 걱정을 누르고 태연자약한 마음으로 한층차 한층차 오르면서 감정이 정점에 치달아 《아, 불빛, 사랑의 불빛/ 내 가슴에 빛발치는 사랑의 불빛이여》라고 걱정을 토설하였다.

가사 《우리네 일터 언제나 봄》에서는 사물을 빌어 부정과 긍정으로 표달한 통술구조배치방식을 쓰고 있다. 《산에 피는 꽃만 아름답다 마세요/ 우리네 온실에도 고운 꽃 피었어요》 뜻이 인츰 드러나게 선택된 구절은 농후한 감정색채와 사람을 탄복케 하는 리성적인 표현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폭발점은 즉시로 전반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치방식에서 점으로부터 면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끌어내어 함박눈내리는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먹게 된 기쁨을 표달했다. 주제를 선행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가사에서의 절실한 감정을 먼저 청중에게 심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사 《또 한배미 넘어가세》는 《오늘은 록파만경 래일은 금파만경》으로 구절내에서 시간적 비약을 가져오고 있다. 보다싶이 이 작품은 조약식구조배치방식을 쓰고 있다. 작품에서는 시공간을 증강하여 서술의 진전을 다그치며 감정을 집약시켜 표달하는 효력을 보이고 있다.

김대현의 가사에서는 점층식, 통술식을 많이 썼고 한 구조배치방식내에서 다양하고 세밀한 방식을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사에서 여러 가지 구조방식을 겸용한 것도 있다.(여기서 일일이 들지 않는다)

김대현은 이밖에도 가사의 진감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한 장르의 스펙을 추출하여 가사에 유용하게 전가(轉嫁)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산문의 우미한 특점(예:《사랑의 불빛》), 미술의 가시적 감염력(예:《아, 백두산》), 영화의 문따쥬(예:《또 한배미 넘어가

세)), 음악의 선율과 절주(례:《진달래》)등 이러한 기법을 썼기에 그의 작품은 우미하고 색채가 이채를 풍긴다. 이것은 작사자의 다종다양한 흥취, 생활경력, 문화수양 등의 종합적소질의 구현이다.

4. 농축된 음악적언어

가사는 련상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에 뚜렷한 른곽과 구체성을 줄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음악적 언어를 합리하게 구사해야 한다. 김대현은 음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언어의 특성을 심각히 파고 들었다. 가창의 순통성, 정서의 조화로움, 음향을 고려하여 모음, 유향자음을 많이 쓰고 거센 소리와 된소리를 피하고있다. 이를테면 《싸리나무》, 《어이하어》, 《아침의 이슬》, 《정갈한 썸물》 등.

작자는 형상성을 띤 비유, 형용어, 조흥구를 잘 쓰고 있을뿐더러 기타 수사학적 보조적 수단도 잘 운용하고있다.

례: 《사랑의 불빛》, 《노을처럼 아름다운 앞날》, 《꿈같은 사랑》, 《이슬처럼 썸물처럼》 등의 형상적 비유, 《두둥실》, 《빙그레》, 《푸르싱싱》, 《스리나슬쩍》, 《들썹들썹》, 《덩실덩실》, 《싱글싱글》, 《치렁치렁》 등의 생동한 형용어와 본딤말, 《에헤야상사디야》, 《에헤에헤야》, 《으흥》, 《얼씨구》 등의 민요에서 많이 쓰던 전통적인 조흥구, 이밖에도 반복, 대구, 상징 등 수법을 음계음악에 상응되게 알맞게 써서 운률과 절주를 조성시켜 정감전달, 정감발로, 정감완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구와 농축된 언어도 많이 쓰고 있다.

례: 《록파만경》, 《금파만경》, 《양춘가절》, 《만년청림》, 《층층제전》, 《만석벌》,

《청산록수》, 《금수강산》, 《천하절승》 등 집약된 언어로 사상함량을 증강하고 참신한 표달효과를 기하고있다.

모두어 말하면 김대현선생은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 예술적 해안으로 사회, 자연, 인생에서 본질적인것을 추출하고 생활을 개괄, 집중하여 예술적 진실에로 작품을 승화시켰다. 그는 전통적인 른격을 취하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준정형률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힘썼다. 그는 우리 민족의 가사문단에서 대중이 즐기는 《또 한배미 넘어가세》, 《사랑의 불빛》 등 우수한 특색있는 가사를 퍼내어 중견작사자의 자리를 굳히고있다.

공동히 극복하고 노력할 점은 후렴구에서 즉흥의 감탄사 《아》가 공식화의 틀거지를 잡고 있는것이다. 그의 가사에서 이런 경향을 피면하지 못하고있다. 향후 우리 민족의 가사문학창작을 개혁하여 새 시기, 새 인간에게 보다 높은 심미세계를 열어주자!

2005년 7월 29일



편집자의 말:

이번기에 특별히 한국 이시환(시인, 문학평론가) 선생님의 평론을 추천하는바입니다. 우리 이곳 지방생들의 좋은 귀감이 될 줄로 압니다.

한국 《동방문학》, 도서출판 《신세림》과 중국 연변 《청산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표절인가 창작인가

- 서지월의 《진달래 산천》과 김승혜의 2005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소백산에 사과가 많다》에 대하여

(한국) 이시환

1. 서지월의 《진달래 산천》에 대하여

진달래꽃속에는 조그만
초가집 한채 들어있어
뿔마루 다듬이돌 다듬이소리
쿵쿵쿵쿵 가슴 두들겨 읊니다.

기름진 땅 착한 백성
무슨 잘못 있어서 얼굴 붉히고
큰일난듯 큰일난듯 발병이 나
버선발 딛고 아리랑고개 넘어왔나요

꽃이야 오천년을 흘러 피었겠지만
한떨기 꽃속에 초가집 한채씩
이태백 달 밝은 밤 지어내어서
대낮이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어머니 누나들 그런 날의 산천초목(山川草木)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쿵쿵쿵쿵 물방아 돌리며 달을보고
흰 적삼에 한껏 붉은 진달래꽃물 들었었
지요

- 서지월의 《진달래 산천》

서지월의 작품 《진달래 산천》은 4련 16행으로 짜여진 서정시이나 4음보 외형률을 느끼게 하는 정형시에 가깝다. 그리고 기승전결(起承轉結)이라는 틀 안에서 의미가 전개되고 있다. 곧 제1련은 《초가집 한채》가 어떤 정황속에 놓여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제2련은 《착한 백성》과 《아리랑고개》로 제유(提揄)되고 있는 우리 력사속에서의 가난과 수난으로 점철된 한민족(韓民族)의 삶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1련의 《진달래꽃》, 《초가집 한채》, 《다듬이 소리》가 제2련의 《백성》, 《아리랑고개》로 련계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있다.

그리고 제3련은 의미 전개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곳으로서 작품의 중요한 소재인 《진달래꽃》과 《다듬이 소리》와 《초가집 한채》로 제유되는 백성의 삶이 《진달래꽃》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곧 진달래꽃이 오천년을 흘러온 우리의 력사 그 자체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라면 그 력사 그 정체성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피어있는 꽃송이 하나, 하나는 백성 한사람 한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태백의 풍류》를 알고 일상속에서 즐겨왔

다는것이다. 물론 특정 민요에서 느끼고 확인할수 있었기 때문이고 제 3련의 《다듬이 소리》가 제 4련의 《물방아》 돌리는 일과 함께 우리 민족의 생활이자 풍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어로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4련은 제 3련에서 말한 풍류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를 드러낸 결구(結構)로서 백의민족의 소박한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삶이 력사속에서 진행되어왔음을 노래하고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겉으로는 진달래꽃을 노래한듯 보이나 실은 과거 우리 민족의 특히 녀성의 한 맺힌, 그렇지만 친자연적 환경속에서 웃음과 여유를 잃지않는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있다.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것은 진달래꽃을 우리 민족 내지는 민족사와 동일시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있고 그 동일시는 진달래꽃의 붉은 빛깔과 그것이 실제로 조상들의 삶터와 가깝게 있어 왔다는 그것의 분포도에 연유하고있다. 특히 진달래꽃의 붉음은 온순하고 착하지만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면면이 력사를 이루어 온 한민족가운데서도 녀성의 끈질긴 생명력과 련계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래서 굳어져 버린, 그것도 우리들의 일방적인 관념속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은 청산별곡의 후렴구와 아리랑과 기타 민요 등에 의존하고 있고 《초가집 - 다듬이 소리 - 물방아 - 달 - 진달래》라는 축과 《버선발 - 흰 적삼 - 어머니, 누나 - 백성 - 아리랑고개 - 진달래》라는 두 축으로 의미를 전개시키고 있지만 이는 력사속에서 고정된 상상력일뿐이라는 사실이다.

시인의 뛰어난 감각적 인식능력이 반영

된 부분이 있다면 《한떨기 꽃속에 초가집 한채씩》이라는 시구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이미 먼저 쓴 시인들이 있고 그 뒤로 유사한 표현들이 양산되어 오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먼저 썼다고 해서 쓰지말라거나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앞뒤 문맥상에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이 표현의 신선도일것이다. 두번째 쓰이는 문장은 첫번째 쓰인 문장보다 감응이 떨어질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례를 들자면 조지훈의 작품 《승무》에서 하늘에 떠있는 달은 하나뿐인데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라고 표현한것이나 서지월의 작품 《진달래 산천》에서 《한떨기 꽃속에 초가집 한채씩》 있다고 한것이나 문제의 신춘문에 당선작인 김승해의 《소백산에 사과가 많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마다 절 한채 들었다》라거나 《나무는 한알 사과마다 편종 하나 달려는것인데》라는 일련의 표현들이 다 같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시인의 진정한 능력은 지금껏 남들이 쓰지않은 문장을 먼저 짓는 일일것이라고.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감각적 인식능력이 반영된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가져다가 새로운 혹은 유사한 시들을 지어내는 경향은 - 인터넷시대인 요즘은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 모방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 크게 보아 변화발전이라는 력사속으로 용해되어 버리고 마는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명한 모방과 표절이 항존하고 있지만 말이다.

2. 김승해의 작품에 대하여

평론

소백산엔
 사과나무 한그루마다 절 한채 들었다
 푸른 사과 한알, 들어올리는 일은
 절 한채 세우는 일이라
 사과 한알
 막 들어 올린 산, 금세 품이 헐렁하다

나무는 한알 사과마다
 편종 하나 달려는것인데
 종마다 귀밝은 소리 하나 달려는것인데
 가지 끝 편종 하나 더욱 따는 순간
 가지 끝 작은 편종 소리는
 종루에 쏟아지는 자잘한 햇살
 실핏줄 뽕뽕한 뿌리로 모아
 풍경 소리를 내고
 운판 소리를 내고
 급기야 안양루 대종 소리를 내고 만다

어찌자고 소백산엔 사과가 저리 많아
 귀 열어 산문(山間) 소식 엿듣게 하는가

- 김승해의 《소백산엔 사과가 많다》

김승해의 작품《소백산엔 사과가 많다》는 전체 3련 18행으로 짜여진 자유시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가지 큰 전제가 있어서 - 물론, 그것은 시인의 일방적인 판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시킬수가 있었다. 그 두가지 큰 전제란 《사과나무 한 그루마다 절 한채 들었다(제 2행)》라는 판단과 《나무는 한알 사과마다/ 편종 하나 달려는것인데 / 종마다 귀 밝은 소리 하나 달려는것인데》라는 판단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큰 판단이 전제가 되어서 나머지 작은 판단들을 전개시켜 시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작은 판단들이란 무

엇인가? 곧 첫번째 큰 판단에서 파생되는 작은 판단들은 푸른 사과 한알을 들어 올리는 일은 절 한채를 세우는 일이고 사과 한알을 들어 올려 산의 품이 헐렁해졌다는것들이다. 그리고 두번째 큰 판단에서 파생되고 있는 작은 판단들은 가지 끝에 매달린 편종 하나를 더욱 따는 순간 가지 끝에서 나는 작은 편종소리는 종루에 쏟아지는 자잘한 햇살이고 나무는 실핏줄 뽕뽕한 뿌리로 모아(무엇을 모은다는것인지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임의로 유추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모호하지만) 풍경소리를 내고 또한 운판소리를 내고 급기야는 안양루 대종 소리를 낸다는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인은 사과 나무를 절(사찰)과 그리고 사과를 편종과 각각 동일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과따는 일을 종을 치는 일로 동일시하고 있는셈이다. 그리고 종을 친다는 행위는 《귀밝은 소리》라는 어구와 《햇살》, 《풍경소리》, 《운판소리》, 《대종소리》 등 일련의 시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명확한 의미로 부여되고 있다. 단지 여기서 사과를 뺏을때에 나는 편종 소리가 종루에 쏟아지는 자잘한 햇살로 인식하는 감각적 전이(轉移), 곧 공감각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시인들과 평자들에게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그렇다면 그 동일시라는것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동일시 자체가 시인의 일방적인 주관적 판단들이며 그 판단들간에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아 모호한 상태에서 독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장치자체가 표현의 한가지 기교라면 기교이겠으나 나에게서는 상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

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가?

그런 기법과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바로 나의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볼수 있다. 곧 이 작품의 결구인 《어찌자고 소백산엔 사과가 저리 많아 / 귀 열어 산문 소식 엿듣게 하는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인은 소백산에 사과가 많아서 산문소식을 엿듣게 됐다고 스스로 감탄하는것인지, 아니면 후회하는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시인이 말한 《산문소식》이라는 시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 그것은 사과나무에서 한알의 사과를 따는 일이 종을 치는 일이고 종을 치는 일은 소리 [법문: 부처의 가르침] 를 내는 일이라는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에는 절이 있고 절에서는 종을 치는 일을 하듯이 소백산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그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 하나 하나는 작은 편종 하나 하나가 되고 사과나무가 힘을 모아 편종을 치면 결국엔 대중소리를 낸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시인은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통해서 편종을 떠올렸고 그 편종을 통해서 소리내는 절안의 풍경, 운판, 대중 등을 떠올린셈이다.

아마도 평자는 시인의 그런 생각 자체를 커다란 깨달음 정도로 판단한 모양이다. 나에게서는 상투적인 좋다고 여기는 시를 쓰기 위해 꾸미고 직조해내는 결끄러운 문장으로 구축된 책임질수 없는 주관적 진실로 여겨질 뿐인데...

특히 문학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자연현상들간의 관계를 가까운 인과관계가 있는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것을 - 불가(佛家)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지만 - 어떤 철학적 기반을 둔 상상력의 표현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론

리적 사고를 멀리하는 우리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례를 들면 미당의 작품인 《국화옆에서》에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번개가 치는 현상과 국화가 피는 현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크게 보아 밀접한 상관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는것이나, 이 작품에서처럼 사과나무가 사과를 통해서 대중소리를 낸다고 보는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쯤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유형의 시들이 영문으로 번역되었을 때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를, 그리고 작품의 겉모양새(작품속 정황이나 시어, 문장)만 바뀌어가고 있지 대상을 보는 철학적 안목이나 시각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것인가를 우리 시인들은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할줄로 믿는다.

어떤 이는 김승혜의 이 작품이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에 소개된 서지월의 작품 《개나리 산천》을 모방 내지는 표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내가 볼때에는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제4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인 김기택의 작품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를 더 근원적으로 모방한 작품이라는 판단이 든다. 미리 말하지만 시인은 중앙일보를 통해서 시를 공부하고 응모는 조선일보에 한 영민함을 보이고 있고 그 영민함이 서지월의 작품에서 감각적인 인식능력이 돋보이는 어구에서 착안하여 유사한 표현을 낳았고 김기택의 작품을 통해서 창작의 모티브인 사과를 얻었고 그 작품이 높이 평가되어지는 이유랄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 수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 높이 평가되어지는 이유와 풀어나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이다. 곧 시의 주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와 꿈을 주어야 하고 그런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현상의 질서나 아름다움에 대한 지

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은 인간 삶과 자연과의 관계설정이 단정적인 진술보다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부추기면서 작품의 주제를 어렵지 않게 인지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모호성이 최대로 부여되는 간접적인 표현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모방과 표절에 대하여

우리가 시를 짓다보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읽었던 남의 작품의 어구(語句)나 문장(文章)을 쓰고 그같은 사실이 지각되는 순간 스스로 놀라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남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빌려 쓰고서도 그가 나의 것을 가져갔다고 말하기도 한다. 독서의 내용은 뇌의 저장창고에 있다가 필요시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나는 비의도적인, 무의식적인 모방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교육적인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모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창적인 문장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이 개인의 발전인 셈이다. 동시에 이는 분명히 어제의 것을 전제로 하여 변화발전하는 오늘의 모습이고 그것이 래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특정인이 특정작품을 접하고서 아주 감동적이다거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작품 내용 전개상에 필요하여 어구나 문장을 원작자의 허락없이 가져가 사용하되 그대로 혹은 그 일부를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의식적인 모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는 않으며 그럴 때에는 반드시 원작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어떠한 형태로든 밝혀야 하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요, 양식이라 생

각된다. 문제는 빌려쓰는 어구나 문장이 자신의 작품 앞뒤 문맥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기여하고 있느냐이다. 남의 어구나 문장을 빌려쓰고도 원작보다 못하다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한 단순한 모방이라 단정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고 원작과 다르게 활용되었거나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면 창조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컨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인들은 보잘것없는 남의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그속의 특별어구나 문장에서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받아 원작보다 더 깊은, 아니 원작과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해내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모방은 창작을 위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띠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방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방작이 최초의 창작품보다 높게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편의 작품을 읽을 때에는 구분이 어려우나 수십여편이 수록된 시집을 읽게 되면 능히, 그리고 자연스레 구분되어진다고 본다.

표절은 말 그대로 남의 시구나 문장을 포함하여 작품의 구조나 내용 등의 일부나 전부를 원작자의 량해나 허가없이 자기의 것으로 몰래 사용하는 것이므로 창의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과 같아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훔치는 자 스스로는 그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라 훔친 물건(작품 속의 문장이나 구조나 내용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변형시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훔쳤다는 사실을 애써 피해보려는 경향을 띤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까지를 표절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왕왕 설전을 펴거나 법적 시비거리가 되

기도 한다. 개인에게는 근원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같은 느낌같은 생각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특정작품의 중요 어구, 문장, 내용, 이야기 전개상의 구조, 기타 두드러진 특징 등을 몰래 가져다 자기의것으로 사용, 발표하는 행위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방과 표절로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과거로부터 있어온 특히 서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창작의 한 기법으로서 특정 작품의 구성요소를 변용하여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패러디(parody)가 인정되어 오고있다는 현실이다. 물론 패러디에 의한 작품이 아무리 재미있고 원작보다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것이므로 작가의 창의적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원작자보다 높게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문제의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김승해의 《소백산엔 사과가 많다》는 이미 언급했듯이 서지월의 중요 문장을 변형시켜 쓰고 있고 제 4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인 김기택의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의 《사과》를 통해서 직접적인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작품의 주제나 내용 전개상의 구조 등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모방의 흔적이 력력하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창의성이 반영된것으로 보아 표절로서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않다.

개인적으로 나에게서는 누가 누구의 작품을 모방 내지는 표절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유사한 작품들을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하는 심사위원들의 안목과 논리적 판단력과 독서력과 개인적인 취향이 작용하는 심사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응모자 내지는 시인들의 작품에 반영된 창의성과 독창성 판단을 못하거나 가볍게 여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동시에 시의 걸모습과 그 치장에 비중을 두는 우리 시단의 한 경향을 읽게 하며 그런 현상들은 자칫 시인의 진실을 간과해버릴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 시인 / 문학평론가
- 시집 《안암동일기》 외 8권
- 평론집 《독설의 향기》 외 7권
- 편저 다수
-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설송문학상, 한맥문학상 등 수상
- 이메일: dongbngsi@empal.com
- 홈페이지: http://www.sentnencei.com

《청산리》 잡지를 읽고서

(홍룡강) 강효삼

금년 8월 안도에서 있었던 제 20 차 중국조선족아동문학탐구회에 갔다가 화룡의 김승중시인으로부터 《청산리》 잡지를 받아 보게 되었다.

세상이 다 알다싶이 화룡은 문화토양이 매우 두터운 곳이다. 그래서 일찍 많은 문학 예술인재들을 배출했다. 비록 그들이 화룡에서 나래를 키운후 좀 더 너른 천지로 날아 갔지만 워낙 뿌리가 깊은 나무에선가 아직도 그 큰 나무에 새들이 많이 앉아서 시대를 읊조리고 있다. 잡지 《청산리》가 바로 그것의 확인으로 될것이다.

나는 잡지를 보면서 우선은 종이의 질과 설계에 감탄이 갔다. 걸보기가 속보기라고 잡지의 걸면부터가 얼마나 탄탄한가! 한개 성급잡지의 질을 족히 압도할 수 있다. 재력도 재력이지만 잡지 하나를 꾸려도 제대로 꾸리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과거와 장래를 말치말고 우선 이 한편의 잡지만으로도 화룡시정부와 겨레 기업가들, 그리고 화룡시 문인들의 지성이 대단하다고 봐야겠다. 남은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가 온다는것을 알면서도 이제 있던 문학지, (문화

지)마저도 없애고 있는데 오히려 더 굳건히 그리고 유포하게 일으켜 세운다는것이 참으로 찬양할바이다.

작품의 질에 앞서 이렇듯 다방면의 재능을 표현할줄아는 문학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다는것은 깊은 잠재력을 말해준다. 때문에 이 한기 뿐아니라 계속하여 잡지를 이끌어 나갈 에너지가 준비된것이 아닌가.

이는 우선 정부의 지지와 관심일것이고 비문화인이지만 문화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재부를 사회의 문화발전에 환언하는 기업인이 있기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부러워한다. 나는 일찍 현금의 문학인들을 모아 조직도 만들어놓고 문학조직의 최종목적인 현금 잡지를 비정기적으로나마 펴 내려했으나 정부는 물론, 문화에 투자해줄 훌륭한 기업인을 찾지 못해 꿈을 포기했었다. 그래서인지 감탄과 함께 부러움이 앞서게 된것이다.

만약 이런분들이 우리 산재지구 겨레들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한편의 글을 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열이며 넓이며 토대이고 축적이다. 이러한 정신적재산이 알게모르게 보는이들



에게 민족정신을 가지게 한다.

그 옛날 민간에 류전되던 그 보잘것없는 책자마저도 유산이 되어 누구인가를 부축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지않았는가. 때문에 나는 《청산리》가 비록 현금잡지이기는 해도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리라 본다.

현금잡지는 또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문학으로 초학자들을 발돋움시켜주는 사닥다리식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학인들이 성숙을 가져오는것이다. 과정이 없이 어찌 결과가 있겠는가!

이는 또한 《연변》이란 중국조선족의 문화중심지에서 그 《중심》을 과시하는 하

나의 작업이 된다. 《청산리》뿐 아니라 기타 현들에서 꾸리는 잡지와 문학지를 보면서 문화고장으로서의 연변을 더더욱 신뢰하게 된다.

문제는 이제 시작보다도 견지하는것이다. 말 그대로 《청산리》가 청산리처럼 길이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문학에 투신하는 문학인들의 정신이 청산리처럼 견고해야 할줄 안다. 문화의 풍토가 짙은 화룡의 문학인들이 기어이 해내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늦게나마 축하와 축원의 뜻으로 이 글을 보내는바이다. ♥

2005년 10월 17일 흑룡강 상지에서

2005년 화룡시문련 및 각협회 대사기

1월 22일, 화룡시작가협회 제 1 차회 원대회가 시 문화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시 문련 류재학상무부주석이 시 작가협회의 새로운 령도기구(주석 김영자, 부주석 박규철, 비서장 김태현, 고문 허영순) 구성을 선포하고 김동하부주석이 새로운 작가협회 회원증을 발급할데 관한 작가협회 결의문을 선포했다.

회의에서는 작가협회의 새로운 《장정》과 신입회원들의 입회를 통과하였으며 20명의 신, 로회원들에게 새 작가협회 회원증을 발급하고 2005년도 작가협회의 전반계획을 제정하고 통과하였다.

1월 24일, 시 작가협회, 시 문련, 시 조 선족서예가협회, 시 미술가협회, 시 음악가협회, 시 구연가협회 등 협회에서는 화룡시 제일백화상점의 화재로 인해 7만여원의 경제적손실을 입은 시 작가협회의 회원인 녀류시인 허옥진에게 사랑이 담긴 1000여원

의 성금을 의연하였다.

1월초, 시 작가협회의 김승중시인의 두 번째 시집 《보리감부기와 <구혼광고>와 흰 그림자의 삶》이 한국 도서출판 《신세림》에 의해 출간되었다.

2월, 연변 TV 음력설문에야회에 김철학 작사 김동하 작곡으로 된 《장백산맥》이 방송되었다.

2월 23일, 시 문련산하 시 양걸협회 10개팀에서는 600여명이 참가한 양걸경연을 진행하였다.

3월초 시 작가협회의 박규철의 《키쨌 다리잡시꽃》, 리송주의 《별나라유치원》, 오기을의 《락수물》이 2005년 연변 TV 《우리네동산》 제 10회 창작동요제 가사평의에 입선되었다.

3월 6일, 시 작가협회에서는 《3.8》 기념활동을 조직하였다. 이날의 활동에는 시 작가협회 전민숙의 200원의 성금이 담겨져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시 작가협회 여성작가들의 자존, 자신, 자애, 자립, 자강정신을 증진시켰고 작가들의 호상간의 우의와 교류, 및 친선을 두텁게 하였다. 활동에는 시 문련의 상무부주석인 류재학, 시 문화관의 김동하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3월 27일, 화룡시작가협회 제 1 차문필회가 화룡시 투도진 룡신촌 로인활동실에서 있었다. 회의에는 시 문련의 류재학상무부주석, 시 문화관의 김동하관장, 룡정시《해란강여울소리》의 황상박주필, 투도진 룡신촌촌민위원회의 황덕주회장을 비롯하여 시 작가협회의 20명회원들과 4명의 적극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영자소설가가 《소설창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난제와 금후의 작품창작에서 가져와야 할 작품의 취미성문제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이날의 문필회에서는 매개 작가들의 부동한 장르의 작품 20여편을 모집, 선정하였고 5편(소설, 수필 등)의 작품 평의를 통하여 작가들의 창작수준을 제고시켰다.

이날의 활동은 투도진문화관 손동일선생의 조직하에 투도진 룡신촌 촌민위원회에서 협찬하였다.

3월, 시 문련에서는 두도진 장인촌에서 소품 《세방살이》, 혼성대창 《늪으막사랑》 등 문예절목으로 《문화하향》 활동을 전개하였다.

4월 10일, 시 선전부, 시 문련의 각 협회책임자들이 서성진간부들과 함께 《진달래화원》에서 진달래식수를 하였다.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동안 《두만강천리답사대》(성원- 류재학, 김장운, 박수일, 조진국)에서는 두만강역의 4개 변경도시, 15개 향진, 38개 촌을 경과하면서 우리 조선족들의 삶의 현장과 숨쉬는 력사의 강, 눈물의 강, 혈연의 강인 두만강의 참모습을 한쪽한쪽 렌즈에 담아 력사에 기록하여 상급의 높은 찬양을 받았다.

5월 29일, 시 조선족서예가협회에서 주최한 전시 《6.1》절맞이 중, 소학교 서예현장표현이 시 청소년활동중심에서(중,소학교 학생 30여명이 참가) 진행되었다. 주 조선족서예가협회의 림장춘, 장문선, 전청송, 량동남과 시 문련, 시 서법가협회의 책임자들이 평심을 거쳐 1 등에 김미화 등 6명이 표창받았다.

5월, 전국 중, 소학생우수미술서법촬영 작품경연활동에서 시 미술가협회의 양호가 그린 유화 《장백의 붓나무》가 영예롭게 2

등상을 획득하였다.

6월 1일, 연변음악가협회, 연변 TV청 소년부, 시 교육국, 시 음악가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6.1》특집에 김태현 작사 김동하 작곡으로 된 《작은 풀잎 하나》등 화룡시작가, 음악가들이 창작한 23수의 아동가요가 방송되었다.

6월 13일과 14일, 《진달래화원》에서 진달래가지자리를 함과 동시에 산바위들에 《진달래고향》이란 글들을 새기었다.

2005년 [연변문학] 6월호에 손혜숙의 수필 《성에꽃》이 발표되었다.

6월 25일 시 토지국, 시 서법가협회, 시 조선족서예가협회, 시 미술가협회 주최로 《토지일》을 기념하여 시 광장에서 전시 중, 소학교 서, 화 경연을 펼쳤다.이날 120여명 중,소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여 120점의 서, 화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하였다.

6월말, 시 문련 기관지 《청산리》 제 5기가 출간되었다.

7월 9일, 시 작가협회에서는 한차례의 들놀이식 활동을 조직하였다. 활동에는 시 문련부주석이며 시 문화관 김동하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활동을 통하여 상반기 총화와 하반기활동계획을 시달하고 다채로운 오락유희활동을 벌려 작가들의 단결, 우의, 협

력, 친선, 공동발전이라는 집단의를 제고 시켰다. 그리고 시 작가협회의 결정과 시 문련의 비준을 거쳐 통과된 서창현 등 5명의 신입회원의 입회를 선포하고 이들에게 시 작가협회의 회원증을 발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박규철부주석이 상반기 각 회원들이 발표한 작품통계수를 공포하고 허영순고문이 앞으로의 요구와 사업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이날의 활동비용에는 시 작가협회의 허옥진의 성금 200 원이 담겨있다.

7월 30일,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시 작가협회의 원로시인 리근영이 첫 시집 《바람과는 무게를 비기지 않는다》를 출간하였다.

7월, 길림성서법협회에서 조직한 경필 서예대전에서 리문호서예작품이 은상을 획득했다.

2005년 [연변문학] 8월호에 김태현의 시 《성에꽃》, 《고드름》, 신영남의 시 《참새》 등이 발표되었다.

8월 15일, 한국 서울에서 조직한 동남아 《반파쇼승리60돐기념》 서예전에서 윤상철 서예작품이 2 등상을 획득했다.

2005년 8월 15일 중국조선족 음악연구회, 연변 TV, 연변음악가협회, 연변교육국에서 조직한 중국조선족청소년음악제 제 1회, 우리내동산 창작동요제 제 10회에서

신창일 작사 김동하 작곡으로 된 《참새나라》가 은상을, 시 작가협회의 리송주의 가사 《별나라유치원》, 시 음악가협회의 김일봉 작곡으로 된 《전화기》, 류재춘 작곡으로 된 《봄날이 오면》, 로창선 작곡으로 된 《달의 노래》가 우수상을 획득하고 김동하가 최우수 지도상을 수상했다.

8월 27일, 시 무용가협회의 조성철이 창작한 민속춤 《절구놀이》가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속박람회개막식에서 표현하여 수많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8월,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연변라디오방송국에서 주최한 중국조선족동요대잔치 제 4 회에서 한동해 작사 임룡길 작곡으로 된 《인류와 대자연은 한집식구》가 은상을, 류재춘 작곡으로 된 《봄이 오는 소리》, 리천우 작곡으로 된 《너와 나 동갑이》, 한성호 작곡으로 된 《교정의 봄》 등이 3등상을 받았다.

8월 28일 전주 《반파쇼 및 항일전쟁 승리 60주년》서예경연에서 서예가협회의 작품 94 점이 전시되었고 이날 려경양 서법 작품이 일등, 양계광, 류가해 작품이 3등상을 받았다.

8월, 시 문련의 류재학이 설계한 《화룡》 화책의 촬영과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여 시 당위와 시 정부령도들의 일치한 찬양을

받았다.

8월, 화룡시인민정부방문단의 일원으로 시 무용가협회의 전해자가 한국 강원도 태백시 방문시 장고춤 《풍년든 기쁨》을 표현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의 절찬을 받았다.

8월 28일, 시 작가협회의 제 2차 문필회가 서성진 김태욱선생의 따뜻한 협찬으로 그의 자택에서 열리었다. 이날 회의에는 화룡시문련 상무부주석인 류재학께서 참석하였다. 그리고 원 연변일보사 전임부총편이며 저명한 평론가, 수필가인 장정일선생이 참석하여 수필창작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룡정시 《해란강여울소리》 주필인 황상박선생이 참석하여 가사창작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한편 이날의 문필회를 통해 류재학상무부주석은 시 작가협회의 사업성적을 긍정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귀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2005년 [연변문학] 9월호에 김태현의 단편소설 《죽음의 도시락》이 발표되었다.

2005년 2월 5일부터 시 작가협회는 한국 월간 《고국소식》지의 윤진기자와 우호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시 작가협회의 부분적 회원들의 작품들을 룡속 월간 《고국소식》지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5월호 《고국소식》지에 박연희의 시 《세척》과 박규철의 시 《하나의 단군민족》, 김태욱의 시 《산딸기》 등을 발표하였다.

6월호 《고국소식》지에 허충남의 시 《다람쥐의 굴》, 오기을의 시 《빛》, 리향자의 시 《오얏나무》 등을 발표하였다.

7월호 《고국소식》지에 신영남의 시 《참새》, 전민숙의 시 《엄마개구리》 등을 발표하였다.

8월호 《고국소식》지에 허충남의 시 《고향의 오솔길》, 리향자의 시 《정거장에서》 등을 발표하였다.

9월호 《고국소식》지에 허옥진의 시 《한숨》, 리근영의 시 《그 골과 그 산은》, 손혜숙의 수필 《성에꽃》 등을 발표하였다.

9월 2일, 제 1 차 연변촬영문화주활동에서 시 촬영가협회의 회원들이 창작한 130쪽의 작품이 연길시청년호에서 전시, 시 촬영가협회가 우수조직상을 획득하고 이번 활동에서 류재학, 박수일 개인사진전을 펼쳐 각각 사진 40점씩 선보였다.

9월 19일, 시위선전부에서 주관하고 시조선족서법가협회, 시 민간문예가협회, 시 문화관에서 주최하고 시 문화가의 문흥, 문성

사회구역과 룡성진농가민속락원의 협조하에 화룡시민속문화축제가 농가민속락원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이번 활동에 시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강방, 시 인대부주임 류가해, 시 인민정부 임종현부시장, 주 조선족서예가협회 장문선주석, 량동남부주석, 주 민간문예가협회의 리성비상무부주석, 연변민족악기 연구소 조기덕소장, 연변대학 남희철교수, 시 문체국 전성일국장, 시 문련 류재학상무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관람지도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100여명의 민속표현인원이 동원하여 《그네뛰기》, 《바줄당기기》, 《웃놀이》, 《전통혼례》, 《소싸움》 등 16가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표현하였다.

9월 30일, 시 촬영가협회에서는 도문시촬영가협회와 손잡고 팔가자림업국 선봉림장에서 《금빛가을》이란 주제로 사진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도라지(10월호)] 제 5기에 김태현의 수필 《바람의 길을 찾아》가 발표되었다.

10월,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시 작가협회의 소설가 김영자의 소설집 《섭리》를 출간하였다.

10월, 애급(埃及)문화교류부, 세계평화

서화전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0기 세계평화서화전국제청소년아동서화작품 경연에서 시 미술가협회 주석 양호가 영예롭게 《조직지도원정상》을 받고 그가 지도한 학생들은 특별금상 2명,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1명을 따내어 화룡시의 영예를 더한층 자랑하였다.

2005년 10월 15일 룡정시 《해란강 여울소리》제2회 정묵컵 응모가요콩클에서 시 작가협회의 김태현이 쓴 가사《먼 그대》, 하태렬이 쓴 가사《당신과 나》가 우수상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날 시상대회에서 박규철선생이 공로상을 함께 받았다.

10월 31일, 화룡시 제2기 《검찰컵》서법, 촬영전람이 시 인민정부앞 인민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활동은 시위선전부, 시 문련, 시 검찰원 등 단위들에서 주관하고 시 서법가협회, 시 조선족서예가협회, 시 촬영가협회에서 협조하여 진행하여 《럼정문화건설》에 관한 서법작품 30점, 촬영작품 60점을 전시하였다.

이날 활동에 시위 리동환상무위원, 시 인대 류가해부주임, 시 검찰원 김학철검찰장, 시위 선전부 부부장 운영혁, 시 문련 류재학상무부주석 등과 3개 협회의 책임자, 회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5년 11월 4일 연변일보사 제2회 《평강컵》수기공모에서 시 작가협회의 박연

희이 쓴 수기 《동생이 너무 이쁘다》가 2등상을, 김태현이 쓴 수기 《늦동이 보는 기쁨》이 3등상을 획득했다.

2005년 [연변문학] 11월호에 김태현의 수필《아름다운 꽃도 향기없을때가 있습니다》, 김영자의 단편소설《합수목의 물소리》, 박규철의 시조《땅》, 《꿀불견》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김영자선생이 연변문학 11월달의 문인으로 등단하여 자서전《피보다 진한 사랑을 쓰려고 작가의 길을 간다》를 발표하였다.

11월 10일, 시 규률검사위원회, 시 문련의 주최로 《럼정문화건설 서예》작품 전시회가 시 과학기술전람실에서 진행되었다. 시 서예가협회의 회원들이 《럼정문화건설》에 관한 주제로 쓴 서예작품 30점을 선보였다.

11월 11일, 시위 선전부, 시 문련의 각협회 30여명이 겨울의 추위도 무릅쓰고 화룡시진달래화원에 진달래식수를 하였다. 이날 각 협회의 30여명 회원들은 100여그루의 진달래식수를 하고 단결우애로 넘치는 즐거운 야외활동을 벌리어 각 협회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모를 밝고 래년에 맞이하게 될 《진달래축제》의 원만한 성공을 미리 기원하였다.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시 문련의 상무부주석이며 중국예술사진협회 회원이며

길림성사진가협회 회원, 연변사진가협회 리사인 류재학은 한국 진흥문화(주)에서 주최하는 《류재학 사진전-〈그리운 고향산하, 그리운 사람들〉》을 서울시 진흥아트홀에서 성대히 전시 진행. 압록강, 두만강변의 풍광과 백두산, 그리고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천지, 그리고 잊혀가는 조선민족의 인정세대를 생생히 반영한 사진작품 60 점을 한국인들에게 선을 보여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1월 26일, 연변작가협회산문창작위원회와 연변조선족어머니수필회에서 공동주최한 제3회 중국조선족어머니수필응모에서 시 작가협회의 김향란이 쓴 작품 《길》이 금상을 획득하고 리향자의 작품 《당신을 하늘이라 불러볼가요?》, 최진옥의 작품 《아버지가 엮은 샷자리》가 각각 동상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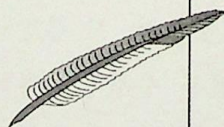
알림

2004년 12월 8일 본 《청산리》 잡지 제 4기에 황양목 트루트가요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여 황영목작곡으로 된 《어떻게 요렇게》 대중가요 전문을 실었습니다.

당시 황양목의 제의에 의하여 현실발전정황을 고려하고 대중들의 부르게 좋게 하려고 작사자 박명룡씨와 사전에 토론이 없이 가사 여덟곳을 고쳤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임으로 박명룡씨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동시에 《청산리》 잡지 독자들에게도 사과함과 아울러 고치였던 가사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14일

《청산리》잡지사 편집위원회



민속놀이 날리리

사진 글 류재학



DINGSHANLI

청산리

青山里



刘载学 摄影

吉林省内部资料性出版物
200304009号

制作工本费10.00元

2559097

承印：AAC艺术广告